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  
GRAND HILTON SEOUL HOTEL Grand Ballroom

2018년 12월 7일(금) 10:00 - 17:00  
Friday, December 7th, 2018 10:00 am - 5:00 pm



출판기념회  
BOOK PRESENTATION

신비와의 만남  
*Encountering the Mystery*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ECUMENICAL PATRIARCHATE  
정교회 한국대교구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 CONTENTS

- 8 ▪ OPENING ADDRESS | Metropolitan Ambrosios
- 20 ▪ Congratulatory Address | Rev. Lee Hong-Jung
- 30 ▪ Congratulatory Address | Fr. Lee Jai-Don
- 42 ▪ Keynote Speech |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nd God Saw that Everything was Good**  
The Theological Vision of Creation in the Orthodox Tradition
- 60 ▪ 2nd Lecture | Very Rev. Arch. Maximos Conostas  
**A Tale of Two Trees:**  
Nature and Human Transformation

---

## Book Presentation

- 96 ▪ Comments about the Publication | Fr. Antonios Lim
  - 104 ▪ Comments about the Book | Rev. Dr. John Chryssavgis
  - 114 ▪ A WORD OF THANKS |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 
- 122 ▪ 3rd Lecture | Gayle E. Woloschak, D. Min., Ph. D.  
**Responding Faithfully to the Ecological Crisis:**  
The Role of Science in Orthodox environmental Ethics
  - 160 ▪ 4th Lecture | Rev. Deacon Perry Hamalis, Ph.D.  
**Love God, Love thy Neighbor, Love the Trees**  
Environmental Justice in Orthodox Christianity
  - 206 ▪ FAREWELL ADDRESS | Metropolitan Ambrosios
  - 214 ▪ Presenter Biographies

## 차 례

- 9 ▪ 개회사 |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 21 ▪ 축사 | 이흥정 목사
- 31 ▪ 축사 | 이재돈 신부
- 43 ▪ 기조연설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  
정교회 전통 안에서 창조물에 대한 신학적 고찰
- 61 ▪ 두 번째 강연 | 막시모스 콘스타스 수도대사제  
**두 나무 이야기 :**  
자연과 인간의 변모

---

### 출판기념회

- 97 ▪ 출판 보고 |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 105 ▪ 책 소개 | 존 크리사브기스 박사, 대보제
  - 115 ▪ 감사의 말씀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 
- 123 ▪ 세 번째 강연 | 게일 월로샤크 박사  
**생태계 위기에 대해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  
정교의 환경 윤리에서 과학의 역할
  - 161 ▪ 네 번째 강연 | 페리 하말리스 박사, 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여라 :**  
정교회에서 본 환경 정의(正義)
  - 207 ▪ 폐회사 |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 215 ▪ 발제자 약력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 개회사

### OPENING ADDRESS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Metropolitan Ambrosios of Korea

▣ ADDRESS

## OPENING ADDRESS

**Metropolitan Ambrosios of Korea**

### **Your All-Holiness, Father and Master,**

Interpreting, I believe, the feelings of all those present, please allow me to begin by expressing the great joy and the extraordinary honor and gratitude we feel, for the special blessing from God, to have Your All-Holiness in our midst along with Your Honorable entourage.

Your Eminences, Reverend Fathers, Your Excellencies  
Ambassadors, Eminent Professors, Ladies and Gentlemen,

On the occasion of the Official Visit of His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the Orthodox Metropolis



▣ 개회사

## 개회사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

**존경하는 영적 아버지, 총대주교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대주교님과 당신의 영예로운 수행 성직자단을 우리 가운데에 모시게 해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크나큰 기쁨과 특별한 영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주교님들, 신부님들, 각국 대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정교회 한국대교구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공식 방문을 맞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of Korea has organized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with the theme: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This theme requires a deep knowledge of Ecology and scientific phenomena, on the one hand, and of Orthodox Theology and Spiritual phenomena, on the other. In addition, it brings these two traditions of knowledge together through a focus on the inalienabl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s is widely known, His All-Holiness has been reflecting on and advocating for this topic more than any other of the world's religious Leaders, which is why he has been named the "Green Patriarch"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o the keynote address, offered by His All-Holiness, we are very pleased to have lectures offered by three international scholars, the Very Reverend Archimandrite Maximos Conostas, Dr. Gayle Woloschak, and Rev. Deacon Perry Hamalis, who are well known for their scholarly expertise in the areas of Orthodox theology, biology, and ethics, respectively, and who are all deeply immersed in the life of the Orthodox Church. I therefore ask all of today's speakers in advance to please accept our deep gratitude for your presence and insight.

And now, please, allow me to offer two simple introductory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환경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생태학과 과학 현상들에 관한 깊은 지식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교회 신학과 영적인 현상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 주제는 인간 인격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며 두 전통의 지식을 결합시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대주교님께서서는 세계의 그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힘쓰고 대변해 오셨으며, 그런 이유로 국제 사회에서 “녹색 총대주교(Green Patriarch)”라는 별칭도 얻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총대주교님의 기조 연설 외에도, 막시모스 콘스타스 수도대사제님, 게일 월로샤크 교수님, 페리 하말리스 보제님 등 세계적 학자 세 분의 발표도 듣게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분들은 각각 정교회 신학, 생물학, 윤리학 분야에서 학자로서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교회 영성과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믿음 깊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 세 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지혜와 식견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주실 것에 대해 먼저 우리 모두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 개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omments:

1. It is well-known that gratitude is one of the greatest Christian virtues and gratitude can be directed properly towards three “destinations”: **First, gratitude toward God.** This is why in the tradition of the Orthodox Church, the most central and vital prayer in the life of an Orthodox faithful is none other than the Sacrament of the Divine Liturgy, called the “Eucharist,” or “Thanksgiving.”

**Second, gratitude towards all those who have departed this life,** by acknowledging all that they have left to us as a treasured inheritance; **gratitude to those who are still living among us,** for collaborating with us in the philanthropic mission of the Church, and **gratitude to those who will come in the future,** for the contributions they will make to protect and enhance the common good of humanity.

**Thirdly, gratitude for the Creation,** which is our home, our life. Nature itself provides an example for us by glorifying the Creator. As the Psalmist writes,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Psalm 19:1) The Hymn of the Three Young Men in the fiery furnace is a prayer of praise and gratitude for their salvation. They call on the heavens, the sun, the moon, the stars, the rain, the dew, the snow, the plants, the sea, the fish, the birds, the beasts, and in general the whole of Creation, to glorify and thank the Lord. “Exalt Him beyond measure unto the ages.” (Daniel 3: 51-90) Only when we,

1.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덕목들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감사는 세 가지 “목적지”로 향해 갑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정교회 전통에서, 정교회 신자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기도, 즉 신성한 성찬예배가 “감사의 성사(Eucharist)”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감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준 분들에게, 또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교회의 자애로운 선교 활동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다음으로 와서 인류의 공익을 보호하고 증진해나가는 데 기여할 후손들에게 향하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집이며 우리의 생명인 피조 세계(the Creation)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라고 시편 저자가 말하듯(시편 19:1), 자연은 그 자신이 창조주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에게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불가마 속에 있던 세 젊은이가 드린 찬미가는 그들이 불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것에 대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해, 달, 별들, 비와 이슬, 눈, 식물, 바다, 물고기, 새들, 가축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자고 말합니다.(다니엘 3:51-90) 우리 인간이 자연 세계를 감사의 마음으로

as human beings, learn how to see the natural world in a thankful disposition, will there be hope for the salvation of all Creation.

2. The second comment relates to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 being for the solution of Ecological Problems**. Often, when talking about the problems our planet faces, many people turn their attention and their awareness to the System and not to the human being. The Orthodox Tradition, however, teaches us the opposite: First above all is the human being and then the System. Our theology prioritizes first the value and responsibility of the human person and then looks to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Systems or technical strategies that will help in solving the problem. For if the emphasis is not put on the spiritual cultivation of the “inner” person (cf. 1 Peter 3: 4), so that the human being sees the Seal of the Creator in everything around him, so that the human being experiences the sanctity of God’s Creation every moment of His life, so that the human being loves and respects whatsoever he has been given as a gift in the earthly realm to “work in it and keep it” (Genesis 2:15)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 (Hebrews 12:28), then no system, no matter how good it may be, will transform the mentality of mastery, exploitation, and egotistic consumerism in the way that is necessary to avoid ecological disaster.

However, if we become what the Apostle Paul calls the

로 바라볼 때에만, 자연 세계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사항은, 생태계 문제의 해결에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구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말할 때, 종종 그들의 주의와 관심을 인간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정교회 전통은 우리에게 바로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시스템입니다. 먼저 인간 인격의 가치와 책임을 우선시 한 뒤에 다양한 시스템이나 기술적 전략의 효과에 대해 타진하는 우리의 신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창조주의 직인을 볼 수 있도록, 삶의 매 순간 순간 하느님의 창조의 신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상의 천국에서 ‘존경과 경외로’(히브리 12:18) ‘일구고 돌보게 하신’(창세기 2:15) 선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내적” 인간의(베드로 전서 3:4 참고) 영적 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일지라도, 생태 재앙의 원인이 되는 지배하고 착취하는 정신과 이기주의적인 소비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투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가

“pure man of God” (cf. 2 Timothy 3:17), cultivating ourselves through personal ascetic spiritual struggle, and considering greediness and the wasting of energy sources for personal ego-centered obsessions as a sin, then our hope for the planet’s survival and flourishing will be well-founded.

Praying that the rich ecological tradition of Orthodox Theology that is in focus at today’s International Symposium will illuminate all of us, and especially those involved in the Green Economy and in Politics, regard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we ask for the paternal blessings of His All-Holiness for the success of this Symposium.

Thank you very much.



말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일꾼”(II 디모테오 3:17 참고)이 되어 탐욕과 자기중심적 집착을 위한 에너지 낭비를 죄로 여긴다면, 우리 지구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더욱 굳건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초점을 맞춘 정교회 신학의 풍요로운 생태적 가르침들이 모두의 마음을, 특히 녹색 경제와 정치를 다루는 이들이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기를 희망하며,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계 총대 주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 **Congratulatory Address**

**Rev. Lee Hong-Jung**  
**General Secretary, NCKK**

Your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nd the people of God as the stewards of the earth, In the name of the God of life, the Creator,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your life-long ecological commitment and endeavor to renew the whole *Oikoumene*, the earth household.

Throughout the Columbus and post-Columbus history, the Western initiatives of ‘openness’ did not always mean mutual acceptance based on a kenotic interdependence, but more often forceful, uninvited invasions, that is, the conquest of ‘otherness’ with the will of

▣ 축사

이홍정 목사  
NCKK 총무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 하느님의 백성이자 하느님의 피조세계의 청지기이신 여러분,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여러분께서 평생 동안 보여주신 생태계 보존 노력과 의지에,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콜럼버스 시대와 그 이후 역사 전체를 통틀어 서구의 ‘개방성’이라는 개념은 자기 비움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상호 수용이라기보다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침략, 즉 독점적 사유화를 위한 ‘타인’ 정복에 가까웠습니다. ‘서구’는 원주민들의 지속 가

monopolistic privatization. The ‘West’ hard-heartedly took over the sustainable space and time of various first nations, ‘cleansed’ them of their diverse ethnicity, ‘raped’ nature, and consequently broke down their interdependent web of life.

After the Cold War Era, the world order has been reshaped by the globalization of a neo-liberal market economy system, and it has become the complex venue where all living beings in the web of life have been turned into commodities and slaves of human avarice. Globalization has become one-way traffic driven by human avarice dashing toward the total breakdown of the deep sustainability of the earth household. God’s web of life has been critically wounded and broken, and its eco-existential principle of interdependence, based on the spirituality of *kenosis* and mutual caring, has been denied in the name of limitless progress and growth. In the accelerating course of over-production, over-consumption and over-disuse, we may be the last generation of humanity to have an opportunity to avert ecological collapse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eco-system that sustains the life-complex on earth. All micro-macro members of the earth household are crying for a ‘deep’ healing and reconciliation, and in the midst of this crying, we hear the voice of the Incarnated God in Jesus Christ which manifests the purpose of God’s mission: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John 10:10b)

능한 공간과 시간을 무자비하게 정복했고, 민족적 다양성을 ‘말살시켰으며,’ 자연을 ‘유린’했고, 이는 곧 상호의존적인 생명의 그물망을 파괴하는 데로 이어졌습니다.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세계 질서를 재구성하면서 생명의 그물망에 속해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인간 탐욕의 도구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기초한 세계화는 지구 가족 지속 가능성의 완전한 파괴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그물망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파괴되었으며, 자기 비움과 상호배려의 정신에 기반한 상호의존성이라는 생태 존재론적 원칙은 무제한적 진보와 성장을 이유로 등한시되었습니다. 과잉 생산 및 과잉 소비, 과잉 폐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지구상의 복합생활환을 유지해 주는 생태계의 회복 불가능한 손상과 생태학적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 가족의 모든 생물은 ‘깊이 있는’ 회복과 화해를 부르짖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 사명의 목적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화된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장 10절).”

Global Climate Change (GCC) as one of the fatal results of globalization has been used as the clue to justify the ‘nuclear renaissance,’ promoting the nuclear energy as a green solution to GCC and a green alternative to fossil fuels. In spite of the existing reality of the nuclear victims of Hiroshima, Nagasaki, Chernobyl, Fukushima etc., the journey of human avarice from Hiroshima to Fukushima has been a journey of ‘cognitive dissonance’; it has dissolved the memories of nuclear disasters into a nuclear armament competition and a nuclear renaissance, instead of sublimating them into the ‘world without nuclear power.’

The cognitive distortion that afflicts modern humanity derives from the anthropocentric worldview, a dualistic view of humanity and nature. On the basis of this world view humans shred the ecological fabric matrix out of which humans are woven, perceiving the world as a jungle, and life within it as a continual struggle for survival. As an inevitable historical consequence to this anthropocentric conditioning, the driving forces of globalization have manipulated God’s kenotic interdependent life-giving economy into Mammon’s monopolistic privatized death-dealing economy. The dualistic view of the world has legitimized the exploitation of nature, women, indigenous people, non-Western cultures etc., and it has also created such colonial missionary ideas as ‘white men’s burden,’ ‘manifest destiny,’ based on the cultural superiority of the West, as missionar-



세계화의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인 지구의 기후변화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친환경적 솔루션이자 화석 연료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대두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인간 탐욕의 여정은 ‘인지 부조화’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핵 참사의 기억들은 ‘핵이 없는 세계’로 승화되는 대신 오히려 소멸되어 핵 군비 경쟁과 원자력 르네상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는 인지 왜곡은 인간중심적 세계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이원적 시각에 기인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자신들을 탄생시킨 생태학적 구조를 파괴하고, 세상을 경쟁의 장으로 바라보며, 그 안의 삶은 생존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결과인 세계화 움직임은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자기 비움의 상호의존적 경제’를 죽음으로 이끄는 ‘맘몬의 독점적 사유 경제’로 둔갑시켰습니다. 세계에 대한 이원적 시각은 자연과 여성, 원주민, 비서구 문명의 착취를 합리화시켰고, ‘백인의 의무,’ ‘명백한 운명’ 등 서구 문명 우월주의에 기반한 식민주의 선교 사상을 낳았으며, 이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국가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종말론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인간의 인지, 그리고 데카르트와 뉴턴의

ies follow their national flags. Today's apocalyptic reality requires a radical shift in human perception, thinking and values from the mechanistic world view of Descartes and Newton to a holistic, ecological view, in which life (생명; 生命) is at its cognitive center.

In the life-centric systemic view, the world is seen not as a pyramid with humans on top but as a web of life; humans but one strand in that web, and as we destroy other strands, we destroy ourselves. We are all embedded in the interdependent living system in a mutually kenotic, mutually caring way. This life-centric systemic view of the world provides us the in-depth cognition, strategy, and praxis for the integration between history and nature, economy and ecology, soul, spirit and body, and for a 'deep' healing and reconciliation of the wounded and broken web of life. It will lead us to the way of God's mission for cultivating an earth household that enhances Life-giving Capital and enjoys it to the fullest extent.

Your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nd the people of God as the stewards of God's creation, I strongly believe that your and our authentic praxis of God's life-giving servant-hood will eventually transform the hegemonic order of the Empire of Mammon into the kenotic interdependent order of God's Economy of Life, the order of the abundant household of God's *Oikoumene*. The God of Life critically warns us against the 'Brave New World' motivated by human avarice, that is the world modifying God's cre-

기계론적 세계관의 사고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꿔 ‘생명’이 인지의 중심이 되는, 총체적이고 생태학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 중시 체계의 관점에서, 세상은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생명의 그물망을 구성하는 한 가닥이기에 다른 가닥을 파괴하면 결국 자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비움, 상호 배려라는 상호의존적인 생명 체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러한 생명 중시 체계의 관점은 우리에게 역사와 자연, 경제, 생태, 영혼, 정신, 육신을 통합할 수 있는 심층적인 인지 및 전략, 방식을 제공해 주며 상처받고 파괴된 생명의 그물망의 ‘심층적’ 회복과 화해를 가능케 합니다. 또한 그것은 지구를 경작하는 하느님 사역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생명을 주는 자분을 증진시키고 최대한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 하느님의 백성이자 하느님의 피조세계의 청지기이신 여러분, 저는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섬김’의 삶을 진정으로 실천할 때, 결국 mammon 제국의 패권 질서가 하느님 생태 경제의 자기 비움과 상호의존적 질서, 즉 하느님의 풍성한 집의 질서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마치 기계인 양 그 유전자를 조작하고,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과잉 폐기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핵분열로 ‘천국의 불’을 빼앗아 오는 등 인간의 탐욕이 만

ation by genetic fabrication as if it is a machine, producing greenhouse gases by over-production, over-consumption, and over-disuse, and stealing ‘the fire of heaven’ by nuclear fission. As stated in Deuteronomy 30:15-20, God set before us life and prosperity, death and destruction,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and commands us, “Now choose life,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and that you may love the Lord your God!” At this fatal situation, I sincerely wish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led by Your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s ‘Green Patriarch’ will motivate the Korean churches to make a whole ecological conversion which is the essential way of rebuilding a healed, reconciled and peacefully reunified Korean Peninsula.

들어 내고 있는 ‘멋진 신세계’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5-20절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날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녹색 총대주교(Green Patriarch)’이신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께서 주재하시는 국제환경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통일의 필수적인 길인 총체적인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게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Congratulatory Address**

## **In Gratitude and Solidarity**

**Fr. Lee Jai-Don**  
**The Catholic Archdiocese of Seoul**

Today, it is my privilege and honour to represent Cardinal Yeom Soo-Jung, archbishop of Seoul, and give an congratulatory address a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 hosted by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It is my particular pleasure to be part of this day where we are not only honoured by the presence of the Ecumenical Patriarch, His All Holiness Bartholomew but also have an opportunity to both listen to his wisdom and celebrate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translation of his book, *Encountering the Mystery*.

As many of you may be aware, His All Holiness was both

▣ 축사

## 감사와 연대

이재돈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오늘 저는 정교회 한국대교구에서 주최한 “환경문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서울대교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님을 대신하여 축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 성하께서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발제를 해 주시고, 성하의 저서 『신비와의 만남: 현대세계와 정교회 신앙』의 출판기념회를 하는 기회이기에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하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

inspirational and influential in the composition of Pope Francis' Encyclical, *Laudato Si'* and our joint vocation to *care for our common home*. That influence has extended to the Catholic acceptance of 1 September as the annual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 Furthermore, that influence, it is worth recalling, even extends here to Korea where, in an act of solidarity, Orthodox and Catholic believers,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religions all gathered in the Familia Chapel in Myeongdong Cathedral to mark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 in 2016.

The publication of *Laudato Si'* mark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for the Catholic Church here in Kore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a few of those changes.

Firstly, before the publication of *Laudato Si'* environmental issues were purely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were interested in ecological issues. However, the publication of the Encyclical made environmental issues an obviously contested but still mainstream Catholic concern. *Laudato Si'* has been, not only in seminaries and religious orders but also in many parishes, the subject of many lectures and seminars. No other papal encyclical, I suspect, has been the object of so much study by ordinary Catholics in the pews. It is my belief that *Laudato Si'* offers more than an analysis



신 우리의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커다란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대주교님께서는 가톨릭교회가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거행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2016년 9월 1일,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정교회와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가 함께 모여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거행했던 연대의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한국가톨릭교회가 환경운동을 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가톨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되기 전에는 환경문제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후에는 환경문제는 전교회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와 수도회는 물론이고, 많은 본당에서도 『찬미받으소서』를 공부하는 강좌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회칙을 일반 신자들이 공부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생태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오늘날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of the reasons for, and proposes solutions of, the ecological crisis but, more forthrightly, presents the contemporary world with an authentic and life-restoring ecological praxis.

Secondly, *Laudato Si'* has pushed ecological theology to deepen its discussion and debate.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mention two significant ecotheologians: Pierre Teilhard de Chardin and Thomas Berry. Teilhard, a Jesuit priest and paleontologist, has, in recent years, enjoyed something of a resurgence in theological circles including a reference in *Laudato Si'*. He dedicated his life to building a consensus between biblical creation theology and modern evolutionary theory. Building on Teilhard, the cultural historian, Thomas Berry, propagates the concept of ecological civilization. The concerns of these two theologians are now an important part of the theological debate here in Korea.

Thirdly, at the ordinary parish level there has been the development of an ecological apostolate and groups such as the “Friends of Heaven, Earth and Water.” For quite a while there has been a general awareness, but little in the way of practice, of the need for an ecological ministry at the parish level. In 2016, however,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Laudato Si'* and on the Feast of St Francis, 4 October, the “Friends of Heaven, Earth and Water” movement was formally established and has now spread to many parishes and diocese here in Korea.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찬미받으소서』의 영향으로 생태신학에 관한 논의와 토론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태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명의 신학자, 페이야르 드 샤르댕과 토마스 베리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수회원이면서 고생물학자였던 페이야르는 『찬미받으소서』에서도 언급한 신학자로 신학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창조론과 현대과학의 진화론을 종합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토마스 베리는 페이야르를 신학적으로 이어받으면서 생태 문명적으로 확대한 문명사학자였습니다.

셋째로, 본당에 생태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이 창립되었습니다. 환경운동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당에 생태사도직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후 2016년 10월 4일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에 “하늘땅물벗”을 공식적으로 창립하였고, 현재 여러 교구와 본당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In connection with these development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gratitude to His All Holiness. It is not hard to trace his influence and wisdom on *Laudato Si'* and consequently on the Catholic Church here in Korea.

I would like to offer my congratulations to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I am deeply grateful for the invitation to attend this day. Personally, I have always been deeply impressed by the mysticism, liturgy, and iconography of the Churches of the East. For a long time, an icon from the Mount Athos Monastery has adorned my wall at home. Nevertheless, this is my first time to attend an event hosted by an Orthodox Church. Hopefully, it won't be my last!

It is my personal opinion that the Churches of the East as opposed to the Latin Western Church are emotionally much closer to Korea. Sadl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opportunity for a fruitful and mutual engagement. It is my profound hope that situation will change: not only will there be more opportunities for us Catholics to appreciate the teachings of the Eastern Churches, but we might together develop opportunities for both spiritual and theological engagement as well as joint programs.

It is my deepest conviction that the theme of today's symposium,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is entirely suited to us who are living in the age of

이 모든 변화는 성하게서 영감을 주신 『찬미받으소서』가 한국 천주교회에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하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정교회 한국대교구에서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뜻깊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정교회의 깊은 영성과 풍요로운 전례 그리고 신비롭게 아름다운 이콘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 방에는 그리스 아토스 수도원에서 그린 이콘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정교회 행사에 참석하기는 처음입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유럽에서 발전한 정교회가 서유럽에서 발전한 라틴 서방교회보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정교회의 가르침을 배울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천주교에도 오셔서 정교회의 영성과 신학을 나눠주실 기회가 있기를, 그리고 한국가톨릭교회와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국제 신학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심포지엄의 주제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은 오늘날 생태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

ecological collapse. I look forward to learning much. Finally, I once again thank His All Holiness for his inspiration and wisdom. I look forward to reading his book. And to all who have prepared and organized this symposium,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하께서 주시는 영감과 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하께서 쓰신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 기조연설

### Keynote Speech

그리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  
정교회 전통 안에서 창조물에 대한 신학적 고찰

And God Saw that Everything was Good  
The Theological Vision of Creation in the Orthodox Tradition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 **Keynote Speech**

## ***And God Saw that Everything was Good***

### **The Theological Vision of Creation in the Orthodox Tradition**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rchbishop of Constantinople-New Rome**

#### **Introduction: Reading the Book of Nature**

At first glance, it may appear strange for the leader of a religious institution concerned with “sacred” values to be involved in “worldly” issues. After all, what does preserving the planet have to do with saving the soul? It is commonly assumed that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exploitation of nature’s resources are matters that concern politicians, scientists and technocrats. They are considered to be the responsibility of interest groups or naturalists.

So the preoccupation of the Orthodox Church and, in particular,

▣ 기조연설

## 그리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

### 정교회 전통 안에서 창조물에 대한 신학적 고찰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 서론: 자연이라는 책 읽기

“신성한”(sacred) 가르침에 관심을 두는 종교 단체의 수장이 “세속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구의 기후 변화와 자연 자원에 대한 남용은 정치인, 과학자, 기술 관료들이 관심을 가질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익 단체나 자연주의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교회 그리고 특히, 최고의 수장인 세계 총대주교가 환경 위

her highest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Ecumenical Patriarchate, with the environmental crisis will come as a surprise to many people. Yet, there are no two ways of looking at either the world or God. There can be no distinction between concern for human welfare and concern for ecological preservation.

In the late third century, St. Anthony of Egypt, the “father of monasticism,” described nature as a book that teaches us about the beauty of God’s creation: “My book [he said] is the nature of creation; there, I read the works of God.” The spiritual collection known as *The Philokalia* records St. Anthony as saying: “Creation declares in a loud voice its maker and master.” This is how the Orthodox Church perceives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 is, as St. Maximus the Confessor claimed in the seventh century, a sacramental dimension to creation. The whole world is a “cosmic liturgy.” St. Maximus adds: “Creation is a sacred book, whose letters are the universal details of creation.” What, then, is the Orthodox vision of the world?

As a young child, accompanying the priest of our local village to remote chapels on our native island of Imvros in Turkey, the connection of the beautiful mountainside to the splendor of liturgy was abundantly clear. This is because the natural environment provides a panoramic vision of the world. Nature’s beauty leads

기에 큰 관심을 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하느님을 분리해서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중적인 시선이나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안녕과 생태 보존에 대한 관심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3세기 후반에, “수도생활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집트의 안토니오스 성인(251-356)은 “내 책은 피조세계의 자연이다. 거기에서 나는 하느님의 작품들을 읽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연을 하느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필로칼리아』로 알려진 영성에 관한 모음집에서 안토니오스 성인은 “창조물은 자신의 창조주이자 주인을 큰소리로 선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교회가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7세기의 고백자 막시모스 성인이 주장하듯이, 피조 세계에는 성사적인(sacramental) 측면이 있다. 성인은 온 세상은 “우주적 성찬예배”(cosmic liturgy)이며, “피조세계는 신성한 책이고, 그 책의 글자들은 피조세계의 보편적인 세부사항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정교회의 견해는 무엇일까요?

마을 신부님과 함께 터키의 임브로스(Imvros)라는 섬에 있는 외딴 작은 교회들까지 따라갔던 어린 아이에게, 성찬예배의 찬란함과 아름다운 산의 연관성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은 세상에 대한 파노라마 같은 비전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생명과 피조세계에 대한 보다 폭

us to a broader view of creation. It is like the wide-angle lens of a camera. It prevents us from using our planet's resources in a narrow-minded or selfish manner.

### **Eucharistic and Ascetic Beings**

In the Orthodox Church, this broader vision is defined by the “eucharistic” and “ascetic” dimensions of life. These two fundamental concepts – “eucharist” and “asceticism” – are profoundly theological and spiritual.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term are easily appreciated. The word comes from the Greek word *eucharistia*, or “thanksgiving,” the same term used for the sacrament of the Divine Liturgy. In calling for a “eucharistic spirit,” the Orthodox Church reminds us that the world is not our private property, but a precious treasure or divine gift. And the proper response to God's gift is gratitude.

The second term that defines our response to God's generosity is “asceticism,” which derives from the Greek word *askeo* and describes the way we treat creation. The world's resources are offered to us by God not only to satisfy our needs, but rather to be shared with others. They are not ours to abuse or waste simply because we have the desire to consume them or the ability to pay for them. The ascetic dimension implies a vocation to respect and protect creation through self-restraint and self-control, as well as through frugality

넓은 시각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카메라의 광각렌즈처럼 우리가 지구의 자연 자원을 근시적이거나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 감사하고(eucharistic) 금욕하는 존재들

정교회에서 이러한 보다 폭넓은 시각은 삶의 “감사하는”(eucharistic) 그리고 “금욕적인”(ascetic) 측면으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의 ‘에프 카리스티아’(eucharistia) 즉 감사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성찬예배를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감사하는 영성”(eucharistic spirit)을 요구하는 정교회는 피조된 세상이 우리의 개인 소유나 재산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소중한 보물이나 거룩한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올바른 태도는 감사와 고마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의내리는 두 번째 단어는 “금욕”(ascesis)인데, 이 말은 그리스어의 ‘아스케오’(askeo)에서 나온 말로 우리가 선물인 피조물을 다루는 방식을 묘사합니다. 세상의 자원들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자원들은 우리가 소비할 필요가 있거나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용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금욕적인 측면은 검소함과 소박함뿐만 아니라 자기절제와 자기

and simplicity. In this way, everything is restored to its original vision and purpose, as God intended it from the moment of creation.

## **Love for the Whole of Creation**

On the sixth day of creation, God fashioned humankind in His image and likeness. (Gen. 1.26) However, most people tend to forget that numerous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cattle and creeping things and wild animals of the earth of every kind” (Gen. 1.24) were also created on that same day.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humanity and the rest of creation is a reminder of the intimate relationship that we share as human beings with the rest of creation. There is more that unites us with the earth than separates us from it. This is a lesson of which science and ecology have reminded us in recent decades.

The saints of the early Eastern Church also understood this lesson very well. They knew that a person with a pure heart was able to sense the connection with the rest of creation, especially the animal world. And this reality has parallels in both Eastern and Western Christianity. Think about St. Francis of Assisi talking to the sun and the moon, or St. Seraphim of Sarov feeding the bear in the forest. This connection with the rest of creation is not merely emotional; it is profoundly spiritual. It is the same truth expressed



통제를 통해서 피조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소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이 창조하신 순간에 의도하신대로, 모든 것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복됩니다.

##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

창조하시는 여섯째 날에 하느님은 하느님의 모습(image)과 닮음(likeness)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창세기 1:26).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온갖 동물들, 온갖 짐승들과 길짐승과 들짐승”(창세기 1:24)들도 같은 날에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나머지 피조물과의 이렇게 가까운 연결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피조물과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와 지구를 분리시키는 점보다 하나가 되게 하는 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과 생태학이 우리에게 상기시킨 사실이기도 합니다.

초대 정교회 성인들은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머지 피조물, 특히 동물들과의 긴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동방 그리스도교나 서방 그리스도교에서 일치합니다. 태양과 달에게 말했던 아씨시(Assisi)의 프란체스코 성인(St. Francis)과 숲에서 곰에게 먹이를 주는 사로프(Sarov)의 세라핌 성인을 생각해보십시오. 다른 피조물과의 이러한 밀접성은 단순히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로 성인이 골

by St. Paul in his Letter to the Colossians, when he spoke of all things created in Christ. (Col. 1.15-17) This is why Abba Isaac of Nineveh wrote in the seventh-century desert of Syria:

What is a merciful heart? It is a heart, which is burning with love for the whole of creation: for human beings, for birds, for beasts, for demons – for all of God’s creatures.

### **Interpreting the Concept of Sin**

Now, if all of creation is sacred, then our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is sacramental. The “sin of Adam” is precisely the refusal to perceive and receive the world as a gift of encounter and communion with God and all of creation. This is why, in his Letter to the Romans, St. Paul emphasizes the consequences of sin, stating that “from the beginning, the entire creation has been groaning in pain” (Rom. 8.22), “eagerly awaiting its liberation by the children of God.” (Rom. 8.19)

Dear friends, the environmental crisis that we face reminds us of the cosmic consequences of sin, which are more than just social or spiritual. Indeed, every act of ecological pollution or destruction is an offence against God. Unfortunately, however, we have behaved

로사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해 말했던(골로사이 1:15-17)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7세기에 니느웨(Nineveh)의 이삭 성인이 시리아 사막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

자비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 즉 사람과 새와 동물과 악령(demons)을 포함하여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이다.

### 죄의 의미에 대한 해석

만일 모든 피조물이 신성하다면, 환경과 우리의 관계는 신비롭고 성사적(sacramental)입니다. 사실, “아담의 죄”는 세상을 하느님과 나머지 피조물들과의 조우와 친교의 선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로 성인은 죄로 인한 결과를 강조하며, “모든 피조물이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로마 8:22) 겪었고, 이제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로마 8:19)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환경 위기는, 단지 사회적, 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 죄의 우주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참으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으로서 우리는 피조

as if we own creation. Creation care is not primarily an ethical or moral issue. It demands a radical change of our worldview and lifestyle. We are called to repent for the way we regard and treat God's creation. Therefore, the traditional concept of sin must be broadened to include environmental abuse! This is why, almost twenty years ago, we declared that "to commit a crime against the natural world is a sin."

###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At the same time, natural creation is inseparable from the identity and the destiny of humanity. Human attitudes and actions toward creation directly reflect human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other people. Ecology is related in both its etymology and meaning to economy; our global economy is simply outgrowing the capacity of our planet to support it. Moreover, scientists estimate that those most hurt by global warming in the future will be those who can least afford it. Thus, pollution is intimately connected to poverty. Creation care is inevitably related to the Parable of the Last Judgment, where the Lord says: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food;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Matt. 25.35).

Concern, then, for the environment is directly related to concern

물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을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피조물을 보살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생활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을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에 대해 말 그대로 ‘회개’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는 환경 남용의 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약 20년 전에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임을 선언했습니다.

###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호연관성

자연의 피조세계는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인간의 태도와 행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생태계(ecology)는 어원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경제(economy)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 경제는 이를 지탱해주는 지구의 능력을 초과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미래의 지구 온난화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점에서 환경오염은 가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보살피는 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를 언급하며,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고(마태오 25.35)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for social justice, and particularly to world hunger. And a Church that does not pray and act for a polluted world is a Church that refuses to offer food and drink to a suffering humanity. This planet is indeed our home; but it is also the home of every human being, of every animal creature, and of every form of life created by God. We must remember that we are not alone in this world; and our generation is not the only one that needs to survive on this planet.

### **Conclusion: A New Worldview**

We have often said that the crisis that we are facing is not primarily ecological. It is a crisis concerning the way we regard and respect the world. Yet, two months ag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met here in South Korea and issued a report on the catastrophic damage and immense cost of climate change, encouraging greater restraint in energy waste than we ever imagined.

So let us acquire a “eucharistic spirit” and an “ascetic ethos” in our approach to creation care. Let us regard ourselves as responsible for every living creature of God. On September 1, 2017, the world day for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e issued a common statement with Pope Francis, proclaiming that “there can be no sincere and lasting resolution to the ecological crisis unless the response is collective and unless the responsibility is shared.”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정의와 특히 세상의 굶주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오염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교회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참으로 이 지구는 우리의 집이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체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만 이 지구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결론: 새로운 세계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기는 일차적으로는 생태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주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창조주의 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무신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피조세계를 보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영성”(eucharistic spirit)과 “금욕적 기풍”(ascetic ethos)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세계 자연 환경 보호의 날인 2017년 9월 1일에 프란체스코 교황(Pope Francis)과 함께, “대응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실천을 우선시 하지 않는다면, 생태적 위기라는 난제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

Dear friends, the beautiful forests, rocky seacoasts, and wonderful mountains of your country belong not only to the present generation but also to future generations. This is why the Korean people have a unique reputation for reducing and recycling as well as respecting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After all, humankind is entitled to a better and brighter world – a world free from degradation and violence, a world of generosity and compassion. It is this selfless love for our children that will show us the path that we must follow into the future.



인 결의는 불가능하다”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아름다운 숲, 바위산이 접한 해안가, 훌륭한 산들은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실천에 있어서 뛰어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인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목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은 더 좋고 밝은 세상(전략과 폭력이 없는 세상, 관대함과 동정심의 세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야할 진로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두 번째 강연  
2nd Lecture

두 나무 이야기 : 자연과 인간의 변모  
A Tale of Two Trees: Nature and Human Transformation

막시모스 콘스타스 수도대사제  
Very Rev. Arch. Maximos Constas

▣ 2nd Lecture

## A Tale of Two Trees: Nature and Human Transformation

Very Rev. Arch. Maximos Constas  
Holy Cross Greek Orthodox School of Theology

Your All-Holiness,

### Introduction

Every depth has a surface, but not every surface has a depth. This is why we should strive to attend to the depth of things, and not to their surface. Attending to the depth, however, is difficult, because we have a problem. We are drawn to surfaces. We are fascinated by appearances, and the exhilaration of surfaces prevents a deeper engagement with whatever is not immediately evident to the senses. In our culture of organized distractions, the depth of

▣ 두 번째 강연

## 두 나무 이야기 : 자연과 인간의 변모

막시모스 콘스타스 수도대사제  
성 십자가 정교 신학교

존경하는 총대주교님,

### 서론

모든 깊이는 표면을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표면이 깊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의 표면이 아니라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깊이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면에 이끌립니다. 우리는 겉 모습에 매혹당하고, 표면이 주는 흥분은 우리로 하여금 감각에 즉시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참여하지

things has largely receded from our view, leaving behind a flattened and hollowed out shell of appearances. With our eyes immobilized by our mobile devices, we live our lives on the surface, in a fruitless search for meaning and fulfillment. At the same time, the world around us seems strangely devoid of God, drained of his presence, as if he too had receded from view together with the depth, so that now even the idea of God, like a fading memory, seems increasingly remote and inaccessible, hidden from our eyes, eclipsed by the blinding light of appearances.

### **The Fall and its Consequences**

The Orthodox Church understands this situation as a consequence of mankind's separation from God. As described in the book of Genesis, the fall of mankind took place through an act of demonic deception, an error in human judgment, and the misuse of free will (Gen 3:1-7). The result was a shift of the mind's spiritual energy to a lower level of biological and animal life—a fallen mode of existence that altered and corrupted human consciousness. This shift of spiritual energy in turn brought about a radical inversion of human perception and cognition, the primary symptoms of which are (1) the disproportionate power of the senses, (2) the mind's attachment to surface appearances, and (3) the subjugation of reason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잘 짜인 오락거리들로 가득한 우리 문화에서, 사물들의 깊이는 우리 시야에서 대부분 멀어지고, 그 뒤에는 깨지고 내용 없는 껍질만 남습니다. 우리는 휴대 기기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 채, 단지 표면에서, 의미와 충만에는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것을 찾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하느님이 없고 하느님의 현존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느님은 깊이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하느님이란 관념조차도 마치 희미해진 기억처럼 우리 눈에 감춰지고, 외양의 눈부신 빛에 가려서 점점 더 멀어져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 타락과 그 결과들

정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류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에 묘사되어 있듯이, 인류의 타락은 악마의 속임수, 인간의 잘못된 판단, 자유 의지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창세기 3:1-7) 그 결과는 마음의 영적 힘이 낮은 단계로,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생명의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을 왜곡하고 부패케 하는 타락한 실존 양태였습니다. 영적 힘의 이 전환은 역으로 인간의 지각과 인식의 근본적인 전도(顛倒)를 낳았습니다. 그것의 일차적인 증상들은 첫째로 감각의 힘이 균형에 맞지 않게 증대된 것이고, 둘째는 마음이 외형적 표면에 집착하게 된 것이며, 셋째는 이성 이 비이성적 감각에 예속된 것입니다.

to irrational sensations.

In the language of the Church, the mind's attachment to outward appearances and sensations is known as a "passionate" or "impassioned" condition. Derived from the Greek word *pathos*, the word "passion" means more than just strong interest or enthusiasm for something (like a passion for baseball or mountain climbing). The English word "pathology" perhaps comes closest to the sense of the Greek, since the root meaning of *pathos* is "passivity," and a pathology is an illness or condition that we do not actively will, but is something we experience passively, which overtakes and overpowers us, and to which we succumb, not unlike an addiction.

A "passion" is thus a pathology of the mind, a condition which impels the mind to attach itself to the outward, material surfaces of things in the world. Through such attachments, the passions effectively conceal the depth of the world, obscuring the spiritual ground of creation and its inner unity. That creation is from God, who is its inner life and reality, is a basic teaching of the Orthodox Church, which sees creation as a theophany—a manifestation and reflection of God's love—and teaches that creation is, by its nature, transparent to its Creator. The passions, however, render the transparent surface of the world opaque. Like clouds obscuring our vision, the passions cloud the mind and prevent it from seeing God's presence in the forms and texture of the natural world. The



교회의 언어에서, 마음이 표면적인 외형과 감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정념적인’ 혹은 ‘감각에 사로잡힌’ 상태로 알려집니다. 그리스어 단어 ‘파토스’(pathos)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패션’(passion, 정념)은, 야구나 등산에 대한 열광과 같은, 강렬한 관심 혹은 무언가에 대한 열광 이상의 무엇을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 ‘파톨로지’(pathology, 병리학)는 아마도 그리스어 어원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파토스’의 어원적 의미는 ‘수동성’(passivity)이고, 병리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무엇, 마치 중독처럼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병이나 상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념”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으로 하여금 세상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표면에 집착하게 강제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집착을 통해서, 정념들은 효과적으로 세상의 깊이를 감추고, 피조세계의 영적 기반과 그것의 내적 통일성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피조세계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그것의 내적 생명이며 실제라는 것은 정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정교회는 피조세계를 테오파니(theophany, 신현현)로, 하느님 사랑의 발현과 반영으로 이해하고, 피조세계는 그 본성상 그 창조주를 투명하게 비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념들은 세상의 투명한 표면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구름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처럼, 정념들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자연 세계의 모습과 구조 안에서

passions are interested in pleasure, not truth, and a mind dominated by the passions remains on the surface of things, unable to perceive the presence of God in creation, just as it is unable to perceive the presence of God in Holy Scripture.

With our perception limited in this way, we fail to grasp the deeper meaning of what is given to us in creation, and our failure to understand creation inevitably leads us to abuse creation. This, then, is the deeper source of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impassioned mind does not seek to protect or preserve the world, but to satisfy its selfish desires through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the world's material surface. Instead of a horizon open to the infinity of God, the world becomes simply a means to satisfy our base appetites and desires, a passive object to be exploited by those who are powerful and ruthless enough to do so. And creation, which should have been a revelation of God's love, has become instead the cause of global competition, aggression, and war, in a never-ending struggle for material resources and profit (cf. James 4:1).

We have, then, two closely related points. First, that creation possesses a double or dual aspect: a surface and a depth, that is, an outward, visible aspect, on the one hand, and an inward, invisible or spiritual aspect on the other. Second, this double aspect corresponds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념들은 진리가 아니라 쾌락에 관심이 있고 정념들에 지배되는 마음은 만사의 표면에 머물러 있기에, 성경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세계 안에서도 하느님 현존을 인식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한되어 버린 우리의 인식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피조세계의 깊은 의미를 포착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오용하도록 이끕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환경 위기의 깊은 원인입니다. 정념들에 사로잡힌 마음은 세상을 보호하고 보전하려 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의 물질적 표면을 착취하고 남용하여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듭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무한을 향해 열린 지평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저급한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킬 수단,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이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수동적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계시였어야 할 피조세계는 대신에 물질적 재화와 이익을 얻기 위한 끝이 없는 투쟁 속에서 전 지구적 경쟁, 폭력, 전쟁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참고 야고보 4:1)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핵심에 이릅니다. 첫째는 이 피조세계가 이중의 혹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과 ‘깊이’의 두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이고 가시적인 측면을 한편으로 하고, 내적

to the divided consciousness that we bring to and impose on the natural world when our mind is dominated by the passions, which compulsively attach us to superficial appearances and sensations.

Orthodox Christian thinkers have reflected deeply on these two points, and many of them have seen the correlation of nature and mind symbolically present in the Two Trees in paradise, which are mentioned in the book of Genesis, namely,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en 2:9, 16-17).

This interpretation of the Two Trees was established in the fourth century by St Gregory the Theologian and St Gregory of Nyssa, whose views were developed and solidified by subsequent theological thinkers such as St John of Damascus (ca. 674-749) and St Gregory Palamas (1296-1359). In what follows, I will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wo Trees by St Maximos the Confessor (ca. 590-662), which is based on the work of the two Gregories, but offers the most comprehensive account of this question within the Greek patristic tradition.

### **St Maximos the Confessor**

Reflecting on the nature of the Fall described in Genesis,

이고 비가시적인 혹은 영적인 측면을 또 한편으로 하는 이중의 측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이중의 측면은 우리가 자연 세계에 대해 가지거나 내세우는 두 개의 분리된 양심(의식)에 조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피상적인 외형과 감각에 강제로 묶어두는 정념들에 의해 지배당할 때, 우리 안에 발생하는 양심(의식)의 분열에 조응한다는 말입니다.

정교회 사상가들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깊이 숙고해왔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피조세계와 마음의 이 상호관계가 창세기에 나오는 낙원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창세기 2:9, 16-17) 안에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나무에 대한 이 해석은 4세기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에 의해 확립되었고, 그들의 해석은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674-749)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1296-1359) 등과 같은 후대의 신학 사상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공고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두 분 그레고리오스 교부들의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리스 교부 전통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훌륭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고백자 성 막시모스의 두 나무 이야기 해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고백자 성 막시모스

창세기에 묘사된 인간 타락의 본질을 숙고하면서, 막시모스

Maximos states that Adam (who is also a symbol of universal human nature) “fell ill with the disease of ignorance concerning the origin of his existence in God” (Responses 1.2.13). Instead of using the power of his mind to seek God in creation, Adam became engrossed in visible things through the power of his senses. Seeking sensory pleasure in creation, Adam discovered only pain and psychological fragmentation, which drove him to seek further and more intense pleasures, which in turn further estranged him from God.

Maximos argues that Adam’s confusion was so great that he mistook the visible creation for God, and unwittingly made a god out of creation. Citing Romans 1:25 (“They worshipped created things rather than the Creator”), Maximos suggests that Adam worshipped not simply creation but his own body, which he loved and cherished more than God. This, according to Maximos, resulted in a rival form of worship, a rival liturgy, which fallen human beings established in place of the worship of God (Responses 1.2.16).

Turning his attention to the symbolic meaning of the Two Trees, the Confessor suggests that they signify two different levels or dimensions of creation. The “Tree of Life” represents the invisible and spiritual dimension of creation, while the “Tree of Knowledge” represents creation’s visible and sense-perceptible dimension. From

는 (보편적 인간 본성의 상징이기도 한) 아담이 “자신의 존재의 기원이 하느님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질병을 앓게 되었다”(Responses 1, 2, 13)고 말합니다. 피조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데 자신의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대신에, 아담은 그의 감각 능력을 통해 가시적인 사물들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피조세계 안에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아담은 오직 고통과 마음의 분열을 발견했을 뿐이고, 그것들은 그로 하여금 더 많고 더 강렬한 쾌락으로 추구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하느님에게 점점 더 낮은 존재가 되어 간 것입니다.

가시적 피조세계를 하느님으로 오인하여 부지불식간에 피조세계로부터 신을 만들어냈을 만큼 아담의 혼동은 엄청난 것이었다고 성 막시모스는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로마서 1:25절을 인용하면서, 막시모스는 아담은 단지 피조세계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몸을 예배하였고, 자신의 몸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시하였다고 말합니다. 막시모스에 따르면, 이것은 하느님 예배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대등한 예배로 귀결되었고, 타락한 인간 존재들을 하느님 예배의 자리에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Response 1, 2, 16)

두 나무의 상징적 의미로 관심을 돌리면서, 고백자 성 막시모스는 이 두 나무가 피조세계의 두 가지 다른 수준 혹은 차원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피조세계의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표상하고, 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세계의 가시적이고 감각적 인식의 차원을 표상한다는

this point of view, creation presents us with a dual aspect, offering us either the potential for spiritual insight and knowledge, or the experience of irrational sensations and pleasures, depending on the frame of mind we bring to it. If we approach creation with a mind that is pure, we will move beyond its surface, enter into its hidden depth, and discern within it the presence of God. If, on the other hand, we approach creation with a mind dominated by the passions in order to satisfy our selfish desires, we will remain bound to surface phenomena, and ignorant of the divine reality present in the world around us. Maximos sees the contrasting realities embodied in the two trees as something also present in the Tree of Knowledge, since by itself it can be taken as a symbol of the created world:

One could also say that when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s contemplated spiritually, it is found to contain the knowledge of the good, but when it is taken in a corporeal manner, it is found to contain the knowledge of evil, and those who partake of it solely in a corporeal manner become oblivious to divine realities. (Responses 1.2.18)

That the Tree of Knowledge marks a stage of progress to the Tree of Life (or simply encompasses that progression within itself) corresponds to the notion that Adam and Eve were created in an intermediate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조세계는 우리에게 이중의 측면으로 제시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피조세계는 우리에게 영적 통찰과 지식의 잠재성 혹은 비이성적 감각과 쾌락의 경험으로 제시된다는 말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피조세계에 접근하면, 우리는 그것의 표면 너머로 옮겨가고, 그것의 숨겨진 깊이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의 이기적 욕망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정념들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을 가지고 피조세계에 접근하면,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에 묶여 있게 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 안에 현존하는 신적 현실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 막시모스는 두 나무에 상징적으로 구현된 대조적 현실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도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피조세계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영적으로 관상하면(바라보면), 그것은 선을 알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육적인 방식으로 취할 땐, 그것이 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 되고, 그것을 단지 육적인 방식으로 먹게 되는 사람들은 신적인 실제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Responses 1, 2, 18)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한 단계를 표시한다는 것 혹은 단순히 그 자체 안에 이 진보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중간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주

state, and, if they kept the commandment about the one tree, they would be able to partake of the other, the Tree of Life. Like the disciples of St Paul, they were like children who needed first to be “fed with milk” after which they could partake of “solid food” (cf. Heb 5:13-14). Thus the Tree of Knowledge was given to them as “a kind of trial, test, and exercise” (John of Damascus, *On the Orthodox Faith* 25). Had Adam successfully completed this test, God would have allowed him to “examine the creations of God together with God, and to acquire knowledge of them, not merely as man, but with the very grace, wisdom, and knowledge of creation that God has” (Responses 1.2.18).

Adam, however, chose to follow the counsel of the serpent, and aspired to become “like God” in separation from God (Gen 3:5), and attempted, “through sense perception alone, to make his own the things of God without God, and before God, and not according to God, which is impossible” (Amb. 10.60). And the only “knowledge” he gained by his experience was the knowledge of what he had lost because of his disobedience. This knowledge was not beneficial to him, but was like a sick man’s knowledge of his former health, which only troubles and torments his mind.

Adam was called to cultivate nature, to name all things with

장, 그래서 그들은 한 나무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계명을 지키면 다른 나무 즉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념과 조응합니다. 성 바울로의 제자들같이, 그들은 먼저는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았고, 나중에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참고 히브리 5:13-14)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종의 심판, 시험, 훈련”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정통 신앙에 대하여』 25.) 아담이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면, 하느님은 그에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피조세계를 탐구하도록, 단지 사람으로서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지혜와 피조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허락되었을 것입니다.”(Responses 1, 2, 18)

하지만 아담은 뱀의 조언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하느님과 같아지길” 열망했으며, “불가능한 것이지만, 감각적 인식만을 통해서, 하느님 없이,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것들을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Amb. 10, 60)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유일한 것”은 그가 불순종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게 된 것”(지식)은 그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든 사람이 병들기 전의 건강한 상태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의 마음을 온통 흔들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연을 경작하라는, 지식을 가지고 만물에 이름을

knowledge, and to transform the world into a means of communion with God. But Adam rejected creation as communion with God and embraced mere appearances, and because of his decision the earth became “cursed” (Genesis 3:17). Thus a new Adam was needed, Jesus Christ, the Son and Word of God incarnate, who in his own person united the created world with the uncreated God. To those who believe in him, he freely offers his own victory over sin and death. He does not, however, take away human freedom, and those who follow him must struggle to break the hold of sensation over reason, to resist the seductions of surface appearances, so that creation can be embraced as the means of our communion with God. All that is required is that our power of free choice, the disposition of our will, remain faithful to Christ, who is present in each believer, assisting him in his struggles, freeing him from the passions, and restoring his spiritual potential for communion and union with God (Responses 6.2).

## **Nature and Human Transformation**

With the mind freed from its passions and attachments, human beings can resume the task of discovering the gracious presence of

붙여주라는, 그리고 세상을 하느님과의 친교의 수단으로 변모 시키라는 소명을 받았습시다. 하지만 아담은 하느님과의 친교로서의 피조세계를 거부하였고 단지 그 겉모습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습시다.(창세기 3:17) 그래서 새 아담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육화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아담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격 안에 ‘창조된 세상’과 ‘창조되지 않으신 하느님’을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죄와 사망에 대한 그분 자신의 승리를 제공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으시니,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감각의 지배를 끊어내기 위해, 표면적 외양들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조세계가 우리와 하느님의 친교의 수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능력, 우리의 의지의 사용이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각 신자 안에 현존해 계시면서, 신자의 이 싸움을 도우시고, 신자를 정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며, 하느님과 친교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의 영적 잠재력을 회복시켜주십니다.(Responses 6, 2)

## 자연과 인간의 변모

정념들과 집착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인간은 피조세계 안에 스며계시는 하느님의 자애로운 현존을 발견하는

God embedded within creation. Our encounter with God does not take place apart from the material world or in opposition to it, but in and through the mystery of the created order. According to St Maximos, the Word of God has inscribed himself within the very fabric creation, like a spoken word transposed into written script, and thus he has made himself known—made himself “legible,” as St Maximos says—in and through his creations. As if it were a kind of cosmic book, the elements of creation are mysterious syllables and signs whose hidden meaning is Jesus Christ, revealed to us in and through the material forms of the natural world (Amb. 10.29-32). We read the book of creation not to acquire knowledge of creation, but knowledge of the Word—and not just to know him, but to become like him, to become by grace what he is by nature, and through him to be united to God. Knowledge of God is not like ordinary knowledge that leaves the knower unchanged, but transforms the knower into the very likeness of the one he knows.

We might think that Maximos’s reasoning here is simply the traditional philosophical notion that “like knows like,” that is, the belief that the mind is conformed to the form of whatever it thinks

과제를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것은, 물질세계와 동떨어져 혹은 그것에 대립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창조된 질서의 신비 안에서 또 그 신비를 통해 일어납니다. 성 막시모스에 따르면, 하느님 말씀은 피조세계의 구조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발설된 말이 글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 말씀은, 성 막시모스가 말한 것처럼, 그분의 피조세계 안에 그리고 그 피조세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조세계가 일종의 우주적인 책이라면, 피조세계의 요소들은, 자연 세계의 물질적 형식들 안에서 또 그것들을 통해서 계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은 의미로 가지는 신비로운 음절들이요 표시들입니다.(Amb. 10, 60) 우리는 피조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the Word)을 알기 위해서, 단지 그분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은총을 통해 우리도 그분이 본성적으로 그러하신 것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피조세계라는 책을 읽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은, 지식(읽)을 얻은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보통의 지식(읽)이 아니라, 그 읽을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닮도록 변화시켜주는 그런 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막시모스의 사유가 “닮은 것은 닮은 것을 안다”(like knows like)는 전통적 철학 개념, 다시 말해 정신은 그것이 이해하는 바로 그것이 됨으로써 무엇이든 그것이 생각하

about, becoming the very thing that it comprehends (cf. Plato, *Phaedo* 79d; *Republic* 486d, 487a). Maximos, who was no stranger to Greek philosophy, would seem to agree with this when he says that, “through the habit of virtue, the mind becomes the very thing that it sees” (Amb. 10.35). However, this is much more than the classical doctrine of the mind becoming the object of its knowledge, since that describes merely ordinary knowledge, ordinary knowing, in which the mind naturally conforms to the object of its thought through the power of its own proper cognitive activity.

For example, the mind that “becomes” a stone in order to know the stone does not acquire the stone’s spiritual energy or activity. In all such cases, the energy or activity of the mind remains unchanged, whether it knows a stone, a rose, or a star. The mind’s knowledge of God, on the other hand, is a radically different form of knowledge, because through it the mind becomes, not the “object” of its knowledge, but another subject, since God freely gives his own qualities and attributes to the one who knows him. In other words, the mind that receives the knowledge of God does not receive another “object” of knowledge, but receives a new way of seeing, a new mode of being, which is the being of Christ. This is why St Paul is able to say: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Gal 2:20). Such a mind knows things, not humanly,



는 것의 형식에 부합하게 된다는 신념(참고, Plato, Phaedo 79d ; Republic 486d, 487a)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모르지 않았던 성 막시모스는 “덕의 습관을 통해, 정신은 정신이 보는 바로 그것이 된다”(Amb. 10, 35)고 말함으로써, 이 철학자들의 관념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이 그것이 알고 있는 대상이 된다는 고전적 가르침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관념은 단지 일반적인 지식을, 일반적인 앎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식과 앎의 과정에서 정신은 그 자신의 고유한 인식 활동 능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유 대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돌을 알기 위해 돌이 “되는” 정신은 돌의 영적 힘 혹은 활동을 얻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경우, 정신의 힘 혹은 활동은 돌, 장미, 별을 알게 된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마음이 하느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앎입니다. 왜냐하면 그 앎을 통해서 마음은 그 앎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분 자신을 알게 된 사람에게 자유롭게 그 자신의 속성과 특질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느님을 알게 된 마음은 그 앎의 “대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고 새롭게 존재하는 방식, 즉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바울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갈라디아 2:20)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 마음은 만사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방식으로 알게 됩

but divinely, which is why the Apostle elsewhere says: “We have the mind of Christ” (1 Cor 2:16). In yet another one of his letters, Paul speaks directly of this transformation, noting that: “When a person returns to the Lord, the veil covering his mind is removed ... and all of us, who with unveiled faces reflect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from glory to glory” (2 Cor 3:16-18).

Closely following St Paul, Maximos describes this transformation in similar terms and language. He notes that the Word of God freely bestows his own qualities and attributes on the saints, who shine forth with the radiance of the divine presence like mirrors reflecting a source of light:

Having been wholly united with the Word, the saints were imbued with the Word’s own qualities, so that they have become like the clearest of mirrors, and thus have become reflections of the form of God the Word, who gazes out from within them, for they possess the fullness of his attributes; none of their human attributes have been lost, but have simply yielded to what is better, like air—which in itself is not luminous—that has been completely mixed with light. (Amb. 10.42)

The reflection of light seen in a mirror does not exist by itself, but only in a dynamic and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the source

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는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I 고린토 2:16)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 사도 바울로는 이 변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벗겨집니다. ...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II 고린토 3:16-18)

성 사도 바울로를 따라서, 성 막시모스는 이 변모를 매우 유사한 용어와 언어로 묘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자신의 특질과 속성들을 성인들에게 주셔서, 빛의 원천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하느님 현존의 빛을 비추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말씀과 온전히 연합됨으로써, 성인들은 말씀 자신의 특징들로 충만해졌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청명한 거울처럼 되었으며, 그들 안에서 응시하시는 말씀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반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의 속성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적 속성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았고 단지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빛나지 않지만 빛과 완전히 뒤섞인 공기처럼 말입니다.(Amb. 10, 42)

거울 속에 보이는 빛의 반사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거울 앞에 있는 빛이라는 원천과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of light placed before the mirror. This optical phenomenon is an analogy for the relationship of God to both human and non-human creation. As a mirror reflecting the light of the sun becomes itself a source of light, so too do the minds and bodies of the saints reflect the light of God. As Maximos explains: “Because of their love for God, the saints became light by participation in the One who is Light (cf. John 8:12), who, because of his love for man, becomes light in those who are light by participation (cf. John 1:9), just as and archetype is present in its image” (Responses 8.2).

Maximos concludes his meditation on the two trees by taking up Paul’s analogy of “unveiled faces,” which he uses to describe the mind’s contrasting responses to the surface and depth of creation. After affirming that, “only true and conscious love of God can deliver us from the grip of the passions,” he says that:

When we are filled with God’s love, we shall no longer see the world with a carnal mind as we once did, when the “face” of our senses was “uncovered” (cf. 2 Cor 3:18), and we mistook the superficial manifestation of created things as “glory,” when in reality it was the source of the passions. (Responses 1.2.22)

Here, the “uncovered face of the senses” refers to the mind’s fascination with the sensible aspect of the world and its surface

관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시각적 현상은 인간과 피조세계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한 유비입니다. 태양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그 자체로 또한 빛의 원천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성인들의 마음과 몸도 하느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성 막시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 빛이신 분(참고 요한 8:12)에 참여함을 통해서 빛이 되고, 본래 빛이신 그분은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참여를 통해 빛이 된 이들 안에서 빛이 되십니다.(참고 요한 1:9) 그것은 원형이 형상 안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Responses 8,2)

성 막시모스는 두 나무에 관한 그의 묵상을, “너울을 벗어버린 얼굴”이라는 성 바울로의 비유를 취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그는 이 비유를 사용하여 피조세계의 표면과 깊이에 대한 우리 마음의 대조되는 응답들을 묘사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참되고 의식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정념들의 통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감각들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세상을 육적인 마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조된 것들의 피상적 발현이 정념들의 원천이었을 때, 우리는 창조된 것들의 피상적 발현을 “영광”이라고 잘못 판단했습니다.(Responses, 1, 2, 22)

여기서 “드러난 감각들의 얼굴”은, 오직 감각으로만 파악된 그래서 정념에 의해 조종되는, 세상의 감각적 차원과 그것의 표

phenomena, grasped by the senses alone, and driven by the passions. Such a “face” is, in effect, a broken mirror that distorts reality and conceals the true meaning of creation. To this “face,” Maximos contrasts a different kind of face—which is also a different kind of mirror—and while it is likewise “uncovered,” it produces a very different reflection:

With the “uncovered face” of the mind freed from the covering of carnal sensations, we will “reflect,” through our virtues and spiritual knowledge, the “glory of God” (2 Cor 3:18), and be united to God by grace, with our minds being raised up beyond all ignorance and error. For in the same way that, being ignorant of God, we deified creation, so too, having received the true knowledge of God, we will be ignorant of every passion and of all sensation. (Responses 1.2.22)

Maximos is saying that when we “uncover” the senses we simultaneously “cover” the mind. That is, when we are absorbed in superficial appearances and irrational sensations, the mind is “covered” and cannot see the depth of creation. Conversely, when the senses are “covered,” the mind is “uncovered,” as the veils obscuring our spiritual vision are removed, enabling the mind to behold the depth of creation, and grasp its inner meaning and purpose (Amb. 10.28).

Despite the contrast here between the mind and the senses,

면적 현상에 마음이 매혹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사실상, 그러한 “얼굴”은 실재를 왜곡하고 피조세계의 참된 의미를 숨기는 깨진 거울입니다. 이 “얼굴”에 막시모스는 또 다른 종류의 얼굴을 대조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종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반사를 만들어냅니다.

육적인 감각의 뒤덮임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의 “드러난 얼굴”로, 우리는 우리의 덕과 영적 지식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반사”할 것이고(II 고린토 3:18), 우리의 마음은 모든 무지와 오류 너머로 고양됨으로써 은총을 통해 하느님과 연합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피조세계를 신처럼 여겼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님의 대한 참된 앎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정념과 모든 감각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Responses 1, 2, 22)

감각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동시에 마음을 “덮어 버린다”고 막시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피상적인 외형들과 비이성적인 감각들에 빨려들어갈 때, 마음은 “덮어버려” 피조세계의 깊이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감각들을 “가릴 때” 마음은 “너울을 벗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하는 너울이 제거되면 마음이 피조세계의 깊이를 보고 그것의 내적 의미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되듯이 말입니다.(Amb. 10, 28)

마음과 감각의 대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음과 육체, 혹

it would be a mistake to think that this is a dualism of mind and body, or body and soul. The opposition that Maximos is describing is not between the mind and the body, but between two different “minds,” an idea he has, again, taken from the theology of St Paul. In his letter to the Romans, Paul opposes the “mind of the flesh” to the “mind of the Spirit,” and it is well known that he uses the word “flesh” to refer, not to the body, but to the mind or person that is alienated from and hostile to God: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The mind of flesh is death, but the mind of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Rom 8:5-7)

## **Conclusion**

In St Maximos the Confessor’s tale of two trees, the movement from the Tree of Knowledge to the Tree of Life is an image of the mind’s progression from the surface of creation to its depth. He teaches us that spiritual progress is not a movement “upward” or “away” from creation, but an “inward” movement, a deepening into the mystery of creation. To enter into this mystery is to find oneself in the presence of the Creator, who transforms us into his own likeness, bestowing upon us his own features, so that we become true children resembling their father.



은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막시모스가 묘사하고 있는 이 대립은 마음과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마음들”이고, 성 바울로의 신학에서 취한 사상입니다. 로마서에서 성 사도 바울로는 “육체의 마음”과 “영의 마음”을 대립시킵니다. 그가 “육체”(flesh)라는 단어를 몸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느님을 적대하는 마음이나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로마 8:6-7)

## 결론

고백자 성 막시모스의 두 나무 이야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생명나무’로의 이동은, 피조세계의 표면에서 그 깊이로 나아가는 마음의 진보에 대한 하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진보는 피조세계 “위로 향한” 혹은 그것을 “벗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안으로의” 운동, 피조세계의 신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 막시모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의 현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그분 자신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모시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

It is not by chance that questions of sin and redemption unfold around the symbolism of the tree. The Tree of Knowledge, which is a symbol of creation, was present at, and implicated in, the fall of man. We sin in relation to a tree. It was therefore only natural that we should also be saved in relation to a tree, through a new relation to the created world, recalling us from our exile and granting us access to paradise.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Christian tradition maintains that the wood of the Cross was fashioned from the wood of the Tree of Life, and was planted on the summit of Golgotha, on the very spot where Adam was buried.

Maximos's vision is more than an intellectual theory. The passions are as real now as they were in the seventh century. Indeed their power is greater now, being dangerously magnified by technology, which enables the manipulation, exploitation, and abuse of the natural world to a degree without precedent in human history. The passions remain at the heart of the problem, and the need to be free of them remains at the heart the solu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mind and the awakening of spiritual consciousness, the broken and divided self is slowly healed and reintegrated. In the light of the Spirit, it will come to perceive and know the love of God inscribed on the parchment of creation. As

의 특질들을 부여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닮은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죄와 대속의 문제가 나무의 상징성을 통해 펼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조세계를 상징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 안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관련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와의 관련 속에서, 피조세계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배로부터 불러내고 우리가 다시 낙원에 이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전통이 십자가 나무가 생명나무로 만들어졌고, 아담이 문힌 골고타 언덕의 바로 그곳에 심어졌다고 믿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막시모스의 사상은 지적인 탐구와 이론 그 이상입니다. 정념들은 7세기에 그랬던 것만큼이나 지금도 실제적입니다. 정말로 그것들의 힘은 지금 더욱 커졌고, 기술을 통해 위협스럽게 확장되어,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자연 세계를 조작하고 착취하고 오용케 합니다. 정념들은 이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핵심은 이 정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모와 영적 의식의 각성을 통해, 깨지고 분열된 자아는 천천히 치유되고 통합됩니다. 성령의 빛 안에서 피조세계라는 양피지에 새겨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느님을 아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구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주체

we saw, the perception and knowledge of God is something that transcends the distinc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It brings into being a new subject, who, in the light of God, sees God in all things and all things in God. It is a dialogical and participatory relationship with God, in which the human person is no longer outside of God and nature, but understands himself to be an integral part of both, and thus is free to exercise his vocation in the world without exploiting or trying to control it. Freed from the illusions of surfaces, he attends to the depth, and finds himself engulfed in a joy that cannot be explained: the joy of being one with all things in the hidden ground of God's love.

### References

Responses = Maximos Constas, *On Difficulties in Sacred Scripture: St Maximos the Confessor,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s of Thalassios*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

Amb. = Maximos Constas, *On Difficulties in the Church Fathers: Maximos the Confessor, The Ambigua to Thomas and Joh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를 존재케 합니다. 이 새로운 주체는 하느님의 빛을 통해, 만물 안에서 하느님을, 하느님 안에서 만물을 봅니다. 그것은 변증법적으로 하느님에 참여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하느님과 자연 밖에 있지 않고, 자신을 이 둘과 통합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착취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자유롭게 수행합니다. 표면들의 환상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깊이에도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느님 사랑이라는 신비로운 장에서 만물과 하나가 되는 기쁨 말입니다.

### References

Responses = Maximos Constas, *On Difficulties in Sacred Scripture: St Maximos the Confessor,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s of Thalassios*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

Amb. = Maximos Constas, *On Difficulties in the Church Fathers: Maximos the Confessor, The Ambigua to Thomas and Joh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출판기념회

신비와의 만남, 현대 세계와 정교회 신앙

BOOK PRESENTATION

*Encountering the Mystery: Understanding Orthodox Christianity Today*

출판기념회

Book Presentation

▣ **Comments about the Publication**

**Fr. Antonios Lim**  
**Director of Korean Orthodox Editions**

Your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In my capacity as Director of “Korean Orthodox Editions,” the publication house of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Your All-Holiness for giving us Your blessing to translate and publish Your book in the Korean language. This is the fourth time that You have visited Korea since Your Enthronement as Ecumenical Patriarch of Constantinople and New Rome. Needless to say, all these visits reflect Your deep love and respect for the Korean people as well as for Korean Culture



▣ 출판 보고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정교회출판사 사장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 성하,

저는 오늘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정교회출판사를 대표해서 성하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신 성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께서는 새로운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세계 총대주교좌에 착좌하신 후, 이 땅을 이번까지 네 번 방문하셨습니다. 이는 성하께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와 한국 문명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성하의 한국어판 “신비와의 만남”의 역사적인 출간을 통해

and Civilization, and it is out of this love and respect that You are with us again now to celebrate this historic milestone in the life of our Church. Therefore, our hearts are filled with exceptional joy for having You among us for the official release of the Korean edition of Your book, *Encountering the Mystery*.

Please allow me to say a few words about the history and progress of our publication house, Korean Orthodox Editions. A number of liturgical and spiritual books were first introduced in Korea by the first Metropolitan of Korea Soterios, (currently Metropolitan of Pisidia) who started his ministry here in 1975 and immediately began translating and publishing various kinds of Church texts. According to the Orthodox tradition,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Church texts in indigenous languages at the beginning of missionary work is a *sine qua non*. It affirms the integrity of the local Church and the dignity of the local people. In Korea's case, from 1975 to 2007, 39 liturgical books, 5 catechism books, 3 prayer books, 9 theological books, 23 seminary textbooks, 20 children's books, and countless pamphlets and weekly bulletins were published. All these publications were made possible by the efforts and commitments of my predecessors, Fr. Antonios Woo and Mr. Savas Lee, and many volunteers.

The publication of books continues to this day through the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전해졌고, 우리들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국 정교회의 출판사업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땅에 정교회의 풍부한 전례서와 신학서적이 소개된 것은 제 1대 교구장이셨던 소티리오스 대주교(현재 피시디아 교구장)께서 1975년에 처음 한국에서 사목을 시작하시고 곧, 각종 교회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시면서였습니다. 정교회에서는 오랜 전통에 따라 선교가 시작된 초기부터 그 지역의 언어로 교회 서적이 번역, 출간되는데(sine qua non), 한국 정교회에는 이때부터 2007년까지 모두 39종의 전례서, 5종의 교리서, 3종의 기도서, 9종의 신학서, 23종의 신학 수업 교재, 20종의 어린이용 도서, 그리고 각종 팜플렛과 매 주일 발행되는 주보가 우종현 안토니오스 신부님과 고 이인수 사바스 교우님,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출판사업은 제 2대 교구장이신 암브로시오스 대주

efforts of many people, including Metropolitan Ambrosios, who oversees the Publication House's continuous and active efforts. Since April 2007, His Eminence has increased the focus on publishing, and has helped identify important works for translation into Korean, including the new version of "Encountering the Mystery," which has made the list of publications much richer and brings our total number of books up to 62.

*"Encountering the Mystery"* teaches us not only who His All Holiness is but also what his beloved Orthodox Church is. We now know why ***"His All Holiness is known by the public for his powerful and brave statements regarding today's ecological crisis."*** We now know that the role of His All-Holiness is to be a bridge that connects different Churches, religions, civilizations, and regions of the world through "conversation" based on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Nowadays, our Korean society is deeply troubled by problems caused by the global ecological crisis, by religious conflicts among different faiths, and by hatred among geographically divided people with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In this situation, therefore, this book will give us a blueprint on what we must do to bring Christ's Agape, (Love) Irene, (Peace) and Sophia (Wisdom) to our society. Agape, Irene, and Sophia are essential spiritual nourishment for us

교와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주교께서는 2007년부터 출판 사업이 현재 우리 한국 정교회가 할 수 있는 영적 선교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밤낮없이 온갖 크고 작은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열정적으로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바르톨로메오스 성하의 책은 정교회출판사에서 2007년부터 간행된 서적 가운데 62번째의 최신간으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성하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총대주교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이분이 사랑하시는 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총대주교께서 “현재의 생태적인 위기와 관련된 강력하고도 용기있는 선언들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인격”에 바탕을 둔 “대화”를 통해 종교와 종교, 문명과 문명,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가 초래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또한 서로 다른 신앙 때문에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또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서로 다른 정치이념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Agape)과 평화(Irene)와 지혜(Sophia)를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

in order to experience “eternal life” as Christians.

Lastly, I would like to ask Your All-Holiness to bless Mr. Gregorios Park, who translated this book. Mr. Gregorios Park and fellow translators who contribute at the Korean Orthodox Editions are on a difficult but important mission of translating works of the Fathers, Saints, and theologians of the Orthodox Church, and thus spreading these works to the Korean society. In addition, I ask Your All-Holiness to bless Mr. Thomas Ha, who committed himself in editing and designing the layout of this book. All of these people are working day and night as faithful servants of God.

Korean Orthodox Editions will continue its publishing work in introducing the spiritual treasures of the Orthodox Church and in letting the light and wisdom of Christ shine among the Korean people. Thus, we “who are weary and burdened” will be able to joyfully receive a bountiful feast on the spiritual table, as St. John Chrysostom, Patriarch of Constantinople, says in his paschal homily: “The table is richly loaded; enjoy its royal banquet. The calf is fatted: let no one go away hungry. All of you enjoy the banquet of faith.”

Thank you all very much.

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적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신 정교회의 교부들, 성인들, 신학자들의 말씀을 다시 번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에 전하는, 힘들지만 중요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저희 정교회출판사의 여러 번역자 가운데서 특히 이 책을 번역하신 박노양 그레고리오스 교우에게 성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의 편집과 디자인 작업에 헌신하신 하정훈 토마스 교우에게도 성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정교회출판사는 앞으로도 계속 정교회의 풍성한 영적 자산을 소개하는 출판사업을 지속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지혜가 널리 전해져서, “식탁은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 여러분은 당당히 식탁에 앉아 음식을 들지어다. 살찐 송아지가 장만되었으니, 아무도 주린 배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모두들 믿음의 잔을 같이 들지어다.”라고 하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부활절 설교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 식탁에서 풍성한 만찬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도록 정교회출판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Comments about the Book**

## ***Encountering the Mystery***

(Seoul Korea, December 2018)

**Rev. Dr. John Chryssavgis**  
**Archdeacon of the Ecumenical Throne**

### **(i) Introduction**

It is a distinct privilege for me to be included in this symposium and book launch. I am deeply honored to address—in essence, to celebrate—the translation into Korean of the seminal book by His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Encountering the Mystery*,<sup>01</sup> which has already appeared in numerous languages, including Greek and Russian, French and Italian, Finnish and Norwegian, Spanish and Portuguese, as well as German, Georgian and Turkish.

01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Encountering the Mystery: Understanding Orthodox Christianity Today*, New York, NY: Doubleday/Random House, 2008.



▣ 책 소개

『신비와의 만남』  
(서울, 2018년 12월)

존 크리사브기스 박사  
세계총대주교청 대보제

(i) 서론

오늘 심포지엄과 출판 기념회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의 주요 저서인 『신비와의 만남』<sup>01</sup> 한글판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저로서는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세계총대주교 성하의 저서는 그리스어, 러시아어, 불어, 이탈리아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어, 조지아어, 터키어 등 다국어로 출판된 바 있습니다.

01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Encountering the Mystery: Understanding Orthodox Christianity Today*, New York, NY: Doubleday/Random House, 2008.

## **(ii) Two Bookends of a Vision**

Distinguished friends, two key terms—encounter and mystery—make up the title of the book, and they stand like two pillars that hold up and hold together the extensive and impressive ministry of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They are like two bookends that reflect the unique vision of His All-Holiness; and, like bookends, they are more than just decorative; they are functional.

The first bookend depicts the mystical beauty of the Orthodox faith in its liturgy, iconography and spirituality; the second bookend denotes the relationship of the Orthodox Church with society. This is why the first chapters of *Encountering the Mystery* describe the rich teaching of the Orthodox Church, while the remaining chapters define the vital conversation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peace, climate change,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These two bookends of the patriarch’s ministry—encounter and mystery—are fundamental dimensions of Orthodox Christianity, just as they also comprise essential aspects of Korean culture.

As the reader of these pages will quickly discover, the Patriarch speaks with a compassionate, yet authoritative voice about global challenges not as political or progressive issues, but as springing

## (ii) 비전을 지탱하는 두 개의 책 받침대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남”과 “신비”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책의 제목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마치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광대하고 인상적인 사목활동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이는 세계총대주교 성하 고유의 비전을 반영하는 두 개의 책 버팀대로서, 그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 책 버팀대는 전례, 이콘, 영성으로 드러나는 정교회 신앙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책 버팀대는 정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비와의 만남』 전반부에서는 정교회의 풍성한 교리에 대해 언급하며, 후반부에서는 평화, 기후변화, 인권, 사회정의 등 교회와 세상 사이의 핵심적인 “대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계총대주교님의 사목에서 두 개의 책 버팀대로 기능하고 있는 “만남”과 “신비”는 한국 문화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정교회 신앙에서도 근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독자들도 금방 알아보겠지만, 총대주교님은 세계의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치적 혹은 진보적인 이슈들로 다루기보단 정교회의 핵심적인 신념들을 통해 매우 권위 있

from the core conviction of Orthodox Christianity.<sup>02</sup> He defines his church and tradition as alive and not antiquated, as rooted in the past but also looking to the future. The same sensitive approach to contemporary issues is demonstrated in Korean culture—especially with its commitment to creation care, to ecumenical collaboration, as well as to social justice and peacemaking.

### **(iii) The Story behind the Scenes**

*Encountering the Mystery* is Patriarch Bartholomew in book form,<sup>03</sup> where the Patriarch inducts his readers into this wisdom and demonstrates with authority how it bears upon a range of global issues. It is a treasury of sane and generous theology, from one of the truly leading figures in the Christian world today.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election of His All-Holiness as Archbishop of Constantinople and Ecumenical Patriarch, the religious editor of Doubleday/Random House, a world-renowned publishing company in New York with over one century of acclaimed publications, invited His All-Holiness to consider producing a manuscript on a subject of his choosing in order to

02 For a description of the ministry and worldview of His All-Holiness, where the Patriarch addresses the modern world in light of the essential message of Scripture and the Church, see Olivier Clément, *Conversations with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7.

03 For the official biography of the Ecumenical Patriarch, see John Chryssavgis, *Bartholomew: Apostle and Visionary*, Nashville, TN: Harper Collins, 2016.

고 연민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sup>02</sup> 세계총대주교님은 교회와 전통을, 낡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또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세심한 접근방식은 한국 문화에, 특별히 피조세계 보호, 에큐메니칼 협력, 사회 정의와 평화구축에 대한 그 헌신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 (iii) 배경설명

『신비와의 만남』은 책으로 구현된 세계총대주교님으로서<sup>03</sup>, 이 책에서 세계총대주교님은 독자들을 이 지혜로 이끄시고, 이 지혜가 다양한 세계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를 권위 있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세계의 진정한 지도자에게서 나온 분별 있고 관대한 신학의 보고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자 세계총대주교 선출 1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에 소재한 세계적인 출판사인 더블데이/랜덤하우스의 종교부 편집담당자가 정교회의 제도, 신학, 영성에 대해 전세계 독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주제를 정하여 글을 써달라고 세계총대주교 성하께 청탁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연민 가득하고

02 총대주교 성하께서 성서와 교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에 비추어 현대 사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사목 방침과 세계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서적 참고. Olivier Clément, *Conversations with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Crestwood, NY :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7.

03 총대주교님의 공식 전기에 대해서는 다음 서적 참고. John Chryssavgis, *Bartholomew : Apostle and Visionary*, Nashville, TN: Harper Collins, 2016.

introduce the institution, theology and spirituality of the Orthodox Church to an international public. The result is the book in your hands, which is Orthodox theology at its most compassionate and comprehensive, boldly prophetic and at the same time encouragingly pastoral. His words are based not on philosophical speculation or academic research but on his lived experience.

#### **(iv) The Legacy of a Patriarch**

The present Ecumenical Patriarch is the 269<sup>th</sup> successor of the Apostle Andrew to the throne of Constantinople. For over seventeen centuries, this historic throne was occupied by an extraordinary range of churchmen, theologians, and saints. So, when Patriarch Bartholomew was elevated to Archbishop of Constantinople—also known as New Rome—he stood on the shoulders of a chain of predecessors, who provided a role model and represented a powerful legacy of an ancient church in a modern world.

In my biographical note at the end of the book, I offer some personal reflections and remarks, very broad brushstrokes of the multidimensional portrait in order to demonstrate how the Patriarch's vision of the Church comprises a passionate struggle to portray how the Orthodox Church is not a political or secular institution, but an ecumenical and universal worldview that transcends historical or national borders. This is how the Patriarch understands the role of

포괄적이며, 담대한 예언자 정신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용기를 주는 사목을 담고 있는 정교 신학입니다. 세계총대주교님의 말씀은 철학적 사색이나 학술적 연구가 아닌 생생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iv) 세계총대주교님의 유산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은 콘스탄티노플의 초대 주교인 사도 성 안드레아의 269번째 계승자이십니다. 지난 17세기 동안 훌륭한 성직자, 신학자, 성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총대주교좌에 착좌하였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이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에 선출되었을 때, 그는 사슬처럼 이어진 전임 총대주교들을 든든한 배경으로 두게 되었으니, 그들은 탁월한 모범을 제공해주었고, 고대 교회의 강력한 유산을 현대 세계 안에 표상했습니다.

책의 맨 뒤에 소개된 총대주교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에서, 나는 교회에 대한 총대주교님의 비전이 어떻게 하나의 열정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계신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과 개괄적인 소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분의 열정적인 노력이란, 어떻게 정교회가 정치적 혹은 세속적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 혹은 민족적 경계를 초월하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인가를 묘사하고자

faith and his own ministry in the world.

Among the numerous institutional and inspirational initiatives of His All-Holiness, perhaps his most remarkable achievement was the courageous convocation of the Holy and Great Council, a meeting of delegations of bishops from the Orthodox Churches that comprise the family of Orthodox Christianity. This event—held in Crete in June, 2016—had been planned for over one hundred years and prepared since the early 1960s. Not since the eighth century had such a Pan-Orthodox meeting of Orthodox bishops occurred. And never before had such a comprehensive assembly of Orthodox bishops been held—today involving fourteen instead of just four or five in the early centuries.

### **(v) Conclusion**

This openness to others—all others: other Christian churches, other religious communities, other ethnic cultures<sup>04</sup>—is the context within which you should read the Ecumenical Patriarch’s book, *Encountering the Mystery*. It is also the context of his visit to this region and nation.

04 John Chryssavgis (ed.), *In the World, Yet Not of the World: Social and Global Initiatives of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Bronx, NY: Fordham University Press, 2010.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대주교님이 신앙의 역할과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의 직무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께서서는 교회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정교회들의 주교대표단들이 모이는 성 대 공의회 소집이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2016년 6월에 크레타 섬에서 개최된 정교회 성 대 공의회는 벌써 100여년 전에 주창되었고 1960년 초부터 준비되어 왔습니다. 18세기 이후 이렇게 전 세계 정교회들의 대표단이 다 모인 정교회 공의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초대 공의회들에는 4-5개의 지역 교회가 참석했을 뿐이지만 오늘날에는 14개의 교회가 참석하는 광범위한 공의회로 발전했습니다.

## (v) 결론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신비와의 만남』은 다른 그리스도교회들, 타 종교 공동체들, 타 민족 문화들, 다른 이들에 대한 이 개방성<sup>04</sup>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지역과 한국 민족을 방문하신 것도 이러한 개방성, 열린 마음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 John Chryssavgis (ed.), *In the World, Yet Not of the World: Social and Global Initiatives of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Bronx, NY: Fordham University Press, 2010.

▣ **Response from Author**

## A WORD OF THANK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rchbishop of Constantinople-New Rome**

Beloved friends,

Allow us to offer a brief word of thanks to all of you for this enriching and inspiring symposium as well as for this touching and sympathetic book launch.

The modest volume that we wrote is subtitled *Understanding Orthodox Christianity Today*. This is because we have not attempted to provide a systematic or exhaustive account of Orthodox teaching and tradition, but rather to concentrate on the themes that are closest to our heart and to our ministry. These include ecology and dialogue, freedom and religion, as well as peace and justice. All of

▣ 저자 말씀

## 감사의 말씀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동적이고 친절한 출판 기념회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영감 넘치는 심포지엄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쓴 이 소박한 책의 부제목은 “현대세계와 정교회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정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설명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목(ministry)에 가장 친숙한 주제들에 초점을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들은 평화와 정의뿐만 아니라 생태, 대화, 자유, 종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 아주 친숙한

these are matters very close to the heart and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The Orthodox Christian faith is founded on spiritual experience, and not simply on philosophy or emotions. In our tradition, preaching and practice are two sides of one and the same coin. This unity of doctrine and life means that the reality of eternal truths lies in the experiential power. This is why, in all that we practice and proclaim in our ministry, we seek to create dialogue, to build bridges, to open doors. We are deeply convinced that this lies at the very core of Orthodox Christianity because the role of religion is to promote encounter, to encourage dialogue, to advance the dignity and freedom of all human beings.

It is helpful to remember that the Greek word for “person” (πρόσωπον) implies relationship; it signifies “facing another person.” To be a human person, then, we must make room for other persons. This means we must care for the natural environment, if we truly care about human life on our planet. We must care for all Christian confessions and faith communities, if we want the witness of religion to be more convincing in our society. We must care for our neighbors, if we want peace to prevail in our world. After all, in God’s creation, there is room for all of us. Let us never forget that both prayer and politics involve relationships; they include caring for all people—especially the marginalized and vulnerable among us.

문제들입니다.

정교회 신앙은 단순히 철학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영적인 경험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전통에서 가르침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러한 교리와 생활의 결합은 영원한 진리의 실체는 경험하는 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목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대화의 장을 열고, 가교역할을 하고, 문을 개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교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깊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역할은 만남을 촉진하고 대화를 장려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말로 ‘사람’을 뜻하는 말은 ‘프로소폰’(πρόσωπον)인데, 이는 관계를 함축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사는 인간 생명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두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호소력을 갖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들과 신앙 공동체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평화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창조세계 안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와 정치는 ‘관계’를 전제한다는 것

Permit us to close with a word of encouragement and hope. For, while we face critical and challenging questions in our time, we should nevertheless not despair. God has not and will never abandon His world. As we write in the very last sentence of the book you are launching today, our sincere hope and wholehearted prayer is that a new day will dawn in our societies and nations, one of reconciliation, justice and peace for the sake of our future generations.

Thank you, and may God bless all of you.

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포함합니다.

격려와 희망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저버린 적도 없으시고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출간하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 기술했고 있듯이, 우리의 진심 어린 희망과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사회와 국가에 새날이 도래하는 것,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화해와 정의와 평화의 새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 세 번째 강연

### 3rd Lecture

생태계 위기에 대해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  
정교의 환경 윤리에서 과학의 역할

Responding Faithfully to the Ecological Crisis:  
The Role of Science in Orthodox Environmental Ethics

게일 월로샤크 박사

Gayle E. Woloschak, D. Min., Ph. D.

▣ 3rd Lecture

## Responding Faithfully to the Ecological Crisis: The Role of Science in Orthodox Environmental Ethics

Gayle E. Woloschak, D. Min., Ph. D.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Hurt not the earth, neither the sea, nor the trees.”  
(Revelations 7:3)

### Introduction

The natural world surrounding us is, for most of us, filled with beauty and wonder. We are moved equally by the dignity of an old pine tree growing on a cliff edge and by the elegance of a bamboo thicket; we are in awe of a river carving a steep gorge and joyful at the sight of a clear fast brook. God has made us of matter; we are material, and our senses and organs are of this world. We are also made to engage the world and be enlivened by it; to love it, enjoy

▣ 세 번째 강연

## 생태계 위기에 대해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 정교의 환경 윤리에서 과학의 역할

게일 윌로샤크 박사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너희들은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해하지 말라”  
(요한복서 7장 3절)

### 서론

우리를 둘러싼 자연 세계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절벽 끝에서 자라는 노송의 위엄에, 그리고 대나무 숲의 우아함에 감동을 받는다. 우리는 가파른 협곡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보고 놀라워하며, 쏟아져 흐르는 청명한 시냇물을 보고 즐거워한다. 하느님은 물질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우리의 감각과 조직은 이 세상에 속한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하고 이 세상에 의해 활력을 갖도

it and suffer in it. All of that is a part of God's plan for us, while we inhabit the earth. Thus, we can say that that God has created us to love material reality, and just as any other love that is godly-this one fuels our desire to know more about the loved one and requires us to tend and care for it.

Christians are instructed to revere the world, not only because it is God's creation, or because they have been told by God to be stewards of all other life on Earth, but also because we are supposed to appreciate the material as well as spiritual. In this context, the Church is not talking about material possessions but about the matter that makes the created world – the world that was made beautiful and perfect by God. Thus Christians discern echoes of perfection in nature while enjoying its splendor and wonder, and while striving to care for it.

It is difficult to care about something without knowing it intimately. While botany is the scientific study of plants, and zoology of animals, neither field examines the interrelationships of plants and animals with each other, with other living things, or with the environment that is both geological and biological. Such study is the focus of "ecology." Ecology, as a field of biology, dates from the

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고, 또 그 안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이 물질적인 현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이 신적인 사랑도 그 사랑의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을 촉진하고 그것을 바라고 더 잘 보살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이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지구의 모든 다른 생명을 잘 관리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 말고도,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의 가치도 잘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창조된 세상, 즉 하느님에 의해서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완벽함의 반영들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연의 찬란함과 경이로움을 만끽하면서 자연을 보살피려고 노력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지 못하면서 보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식물학은 식물에 관한, 동물학은 동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이지만, 이 둘은 식물과 동물에 대한 상호관계나 다른 생물체들이나 지질학적이고 생물학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ecology) 분야이다. 생물학 분야로서의 생태학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되

late 19th century, and grew from scientists recognizing relationships that are interdependent and permanently changing, similar to the relationships within a household. Originally, this field of science was called “oecology” because it was derived from the Greek words “oikos” which means household and the word “logos” which means knowledge or study. This notion of ecology as the study of the household is twofold. On one hand – plants and animals cohabiting an area on Earth are indeed like so many similar and dissimilar members of a single household. On the other hand – the earth is the household of humanity.

From 1950 onwards, “ecology” became a regular part of our vocabulary. Today, the term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movement that seeks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ecological movement” has become the focus of studies relating to the misuse of natural resources, disturbances of natural systems, , global climate change, pollution of air, soil, fresh waters, oceans, overtaxing of resources, loss of species and environments, and so much more.<sup>01</sup> The most surprising fact about the ecological movement is that its primary focus for change is humanity, since many of the ills that are befalling our household Earth come from human activity. Those who truly love the world are astonished by the disregard for Earth

01 This is defined in most textbooks of Ecology, see for example Bowman, W. D., Hacker S. D. and Cain, M. L. *Ecology* fourth edition, 2018.

어, 한 집에 사는 가족 관계처럼 상호의존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계들을 인식한 과학자들에 의해 발전했다. 원래는 이런 과학 분야는 ‘집’을 의미하는 ‘이코스’(oikos)와 지식이나 연구를 의미하는 ‘로고스’(logos)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어, “oecology”라고 불렸었다. 생태학을 가정에 대한 연구로 보는 개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구에서 공존하는 식물과 동물들이 한 집에 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수많은 구성원들과 유사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가 인류의 집이기 때문이다.

1950년 이후로, “생태학”(ecology)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어휘가 되었고, 오늘날 이 말은 환경을 보호하려는 정치적인 활동과도 종종 연관이 된다. “생태 운동”(ecological movement)은 자연 자원의 남용, 자연계의 교란, 지구의 기후 변화, 공기, 토양, 물, 바다의 오염, 자원의 과용, 동물 멸종과 환경 손상 등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았다.<sup>01</sup> 생태 운동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변화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인류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집인 지구에서 발생하는 많은 해악들은 사람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육에 눈이 멀어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구와 생명체가 경시당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

01 This is defined in most textbooks of Ecology, see for example Bowman, W. D., Hacker S. D. and Cain, M. L. *Ecology* fourth edition, 2018.

and for life itself by those who engage in exploitative practices or simply fail to practice restraint.

### **Ecological catastrophes caused by poor understanding and disregard of existing natural balance**

There are many illustrations that can be used to explain the ways in which human intervention can affect the environment. One such example is the so-called “War of the Sparrows” that took place in China from 1958-1961.<sup>02</sup> At that time, and perhaps today as well, politicians had strongly rooted beliefs in the manifest destiny of their programs for betterment of countries under their command. Unfortunately, because of its political association with Russia, China adopted many Russian agricultural ideas. These ideas were often changing and had nothing to do with the actual science of agriculture. Thus, for example, the idea that deep plowing is beneficial for crops was embraced, and the seeds were planted in clay rather than hummus and were planted very close to each other. No crops came from this practice, leading to a famine in China. While some may have suspected the real cause of this disaster, it was politically more acceptable to blame the famine on the sparrows who were occasionally seen eating seeds. Posters about benefits of

02 This is well described in many texts, including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our\\_Pests\\_Campaign](https://en.wikipedia.org/wiki/Four_Pests_Campaign) (accessed 10 Nov 2018)



## 자연계 균형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로 인한 생태적 재난

인간의 개입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다. 그 한 예는 1958년에서 1961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참새와의 전쟁”이다.<sup>02</sup> 그 당시 (아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지휘하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절대적인 숙명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불행하게도,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연계했던 중국은 러시아의 농업 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그 방식들은 종종 가변적이고 실제 농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쟁기질을 깊게 파는 것이 농작물에 이롭다는 방식이 수용되었고 씨앗들은 부식토가 아니라 점토에 아주 촘촘하게 심어졌다. 그 결과 흉작이 발생해서 중국에 기근이 초래되었다. 그 재난의 실제 원인을 추측할 수도 있었겠지만, 씨앗을 쪼아 먹는 참새로 인해 기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용납되었다. “기근을 줄이기 위해” 참새를 소탕하자는 선전 포스터가 전국적으로 뿌려졌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새총으로 참새를 잡았고, 마을마다 수천 마리의 죽은 참새들이 자랑스럽게 수레에 실려 운반되었다. 1958년에만 4~8백만

02 This is well described in many texts, including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our\\_Pests\\_Campaign](https://en.wikipedia.org/wiki/Four_Pests_Campaign) (accessed 10 Nov 2018)

killing sparrows, “to reduce the famine,” were used throughout the country. Adults and children were equipped with slingshots to kill sparrows, and carts with thousands of dead sparrows were wheeled triumphantly around towns. In 1958 alone, 4-8 million sparrows were killed. However, crop yields decreased even further. The following year, in 1959, populations of locusts, who truly do feed on the grain, soared because of the absence of sparrows who eat the locusts. By 1961, grain production was only 70% of normal and in three years from 1958-1961 over 30 millions of people in China died from famine. The famine was artificially caused by human intervention based on a lack of knowledge about agriculture and ecology. Because humans were killing the sparrows, sparrow food - locust flourished and ate the grain, killing humans.

A more recent example of human-caused damage of ecological systems on a wide scale is the gradual replacement of pollinator insects with non-pollinating insects. Pollinators visit flowers in order to harvest their pollen and nectar, and through this mea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ransferring pollen between plants and aiding in flower reproduction. At least 80% of the world’s crop species require pollination to set seed. However, because many insect species are considered pests, and because large areas of Earth surface are treated with pesticides, pollinator insects are exposed to the same toxic agents as their “non-desirable” counterparts. Many

마리의 참새가 잡혔다. 하지만 곡물 수확은 더욱더 감소했다. 이어지는 1959년에는 오히려 곡물을 먹고사는 메뚜기의 개체 수가 메뚜기를 잡아먹는 참새의 감소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1961년에 곡물 수확은 평균의 7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고, 1958년에서 1961년 사이에 3천만 명이 중국에서 기근으로 사망했다. 이 기근은 농업과 생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인간의 개입으로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이 수많은 참새를 잡았기 때문에, 참새의 먹이인 메뚜기가 급증하여 곡물을 먹어치워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이다.

인간에 의해 대규모로 생태계를 손상시킨 좀 더 최근의 예는 꽃가루를 운반하는 곤충을 그렇지 않은 곤충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꽃가루를 운반하는 곤충들은 꽃가루와 꿀을 채취하려고 꽃을 찾는데, 이로 인해 식물들 사이에 꽃가루를 운반하여 꽃들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의 농작물의 최소한 80퍼센트는 그런 곤충들의 도움으로 씨가 뿌려진다. 하지만 많은 곤충들이 해충으로 간주되고 지구의 많은 지역에 살충제가 살포되어 꽃가루 운반 곤충들이 해충들처럼 유독한 성분에 노출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 벌이나 나비 같은 꽃가루 운반 곤충들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한다. 영국과 네덜란

studies have documented a tremendous reduction in pollinating insects, particularly bees and butterflies, in recent years. In the UK and the Netherlands, the place in the ecosystems that was held by pollinating bees is now held by hoverflies (also called Syrphids) that are not involved in pollination. Moreover, these hoverflies also bring with them a virus that kills bees and thus the result is the further loss of pollinating insects that will eventually affect agriculture across the world.<sup>03</sup> Already in China there are some practices of pollination by humans through a labor-intensive and inefficient process. This lack of pollinators can become a threat to food production throughout the world, and it is even more seriously endangering all plant species that are pollinator-dependent but not used as food. This crisis will require efforts to reduce both climate change and the use of pesticides such as neonicotinoids that harm the pollinators. In the USA, a ban on neonicotinoids institu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2015 was rever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sup>04</sup>. Thus, we see that politicians still believe in their own “wisdom” first, dangerously disregarding the knowledge and efforts of scientists.

03 Potts et al.,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 (2010) 25: 345-353.

04 <https://www.newsweek.com/neonicotinoids-trump-administration-rolls-back-ban-1061906>

드에서는 꽃가루를 운반하는 벌들의 생태적 자리를 이제 꽃가루를 운반하지 않는 꽃등에들(hoverflies 또는 Syrphids)이 차지했다. 이 꽃등에는 벌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전 세계의 농업에 영향을 미칠 꽃가루 운반 곤충들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sup>03</sup> 이미 중국에서는 노동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꽃가루 운반 작업이 사람들에게 의해 진행되고 있다. 꽃가루 운반 곤충의 감소는 전 세계의 식량 생산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식량이 되지 않지만 꽃가루 운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식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와 같은 꽃가루 운반 곤충에게 해로운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기후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015년에 미국의 오바마(Obama) 정부가 제정한 네오니코티노이드 금지법은 2018년에 트럼프(Trump) 정부에 의해 철회되었다.<sup>04</sup>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의 지식과 노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03 Potts et al.,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 (2010) 25: 345-353.

04 <https://www.newsweek.com/neonicotinoids-trump-administration-rolls-back-ban-1061906>

## Examples of misplaced blame for ecological catastrophes

For many years, member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blamed organized religion for environmental problems. In 1967, a famous article in the journal *Science* blamed Christians for the environment's declining health because Christian doctrine teaches that humans are set apart from other creation as their masters; the authors suggested that Christianity's belief in human superiority is the root cause of ecological problems.<sup>05</sup> In the USA, this article led to much discussion and new articles on both sides of the "debate" – scientists and religious leaders that refuted or supported the original claims. On the one side, radicalized views that are anti-science gained ground within some religious communities, particularly those that are evangelical Protestant. On the other side, many scientists took anti-religion stances and fought religion in general, as an area of study that is not evidence-based. The confrontational attitude that exists today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viewpoints was likely strengthened, in part, by this acrimonious and never-resolved discussion of environmental issues.

The *Science* article in question descried the view that Christianity endorses the "use" (which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abuse)

05 White, S.,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1967) 155: 1203-1207

## 생태적 재난의 원인을 잘못 규명한 예들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 종교를 탓하였다. 1967년에 『사이언스』(Science)라는 학술지의 한 유명한 논문은 인간을 다른 생명체들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리스도교 교리 때문에 환경이 악화되었다며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다. 즉, 인간의 우월함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생태계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sup>05</sup> 이 논문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 주장을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종교인들과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에 관한 많은 논문이나 토론회가 이어졌다. 과학에 반대하는 급진적 주장들이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들 안에서 퍼져나갔고, 많은 과학자들은 종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학문 분야라고 종교에 맞섰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종교와 과학 사이의 대립적 태도는 환경 문제라는 적대적이고 해결하기 힘든 난제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 같다.

논란을 일으킨 그 학술지의 논문은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지구를 “사용”(남용의 가능성을 허용하는)하는 것을 지

05 White, S.,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1967) 155: 1203-1207

of the Earth to serve (some of) humanity's needs. Authors of this article considered this idea to be a core component of Christianity and expounded that this notion has led to a continual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from the Middle Ages until now. As the previous examples indicate, the most frequent human issue at odds with scientific efforts for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s politicians' folly coupled with cowardly citizens who do not try to protest or challenge the arbitrary (or perhaps greedy) notions of politicians by calling upon scientific data.

### **Examples of historical Christian attitudes toward ecology**

While the scientific field of ecology did not exist until 19<sup>th</sup> century, Christianity and Christian faithful traditionally treated the Earth as their household. Instead of promoting an abuse of the earth, the ancient Christian faith emphasized a correct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Early Church Fathers advanced a view of creation that underscores humanity's responsibility for creation. An Orthodox interpretation of Genesis emphasizes God's commands to humans to have "dominion" (not domination) over the world. Moreover, at God's command, Adam named all of the animals (Gen 2:19). While this may seem puzzling at the first glance, we should remember that naming something means both an "ownership" over



지한다고 주장한다. 그 논문의 저자들은 이런 지지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간주하고, 이로 인해 중세부터 현재까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제시한다. 앞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환경을 보존하려는 과학적 노력에 상충하는 가장 빈번한 문제는 정치인들의 우매함과, 정치인들의 터무니없는 (또는 탐욕스런)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항하거나 맞서지 못한 용기 없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

### 역사에 나타난 생태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태도

생태학이라는 과학 분야가 19세기에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지구를 그들의 집처럼 생각했다. 옛날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구의 남용을 장려하기는커녕,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강조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창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창조론을 제시했다. 창세기에 대한 정교회의 해석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세상에 대한 지배(domination)가 아니라 “통치”(dominion)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창세기 2:19) 점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어떤 것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어렸을 때 우리

that something and establishes our responsibility for it. As children, we delight in naming our pets while our parents expect that we will feed and care for them. This is not very different from practice in some Orthodox communities where the godparents are charged with naming the godchild.<sup>06</sup> While it is patently clear that godparent does not own the godchild in any way, the responsibility remains: a godparent has a duty to care for their godchild. When Adam named the various creatures on earth at God's instigation, this act was symbolic. It established a covenant that made humanity responsible for all life on earth. (Incidentally, Noah dispatched this responsibility when he took a pair of each type of animal on his ship.) A good godparent's responsibility does not end with the baptism service or with offering a token gift or communication once per year. Godparents' responsibility has elements of protection, tender love, and nurturing throughout a lifetime, as well as keen observation of their godchild's true character and wellbeing. Thus, the "total Adam" has to care for the Earth more often than just on Earth Day holidays or on selected cleanup days.

06 This is discussed extensively in S. Bulgakov's book *Icons and the Name of God* (translated by Boris Jakim), translation published in English in 2012, Eerdmans Press.

는 우리의 애완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좋아했는데,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 동물들을 잘 보살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것은 대부 대모들이 대자녀의 이름을 지었던 몇몇 정교회의 관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06</sup> 대부 대모가 대자녀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책임은 존재한다. 대부 대모에게는 대자녀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 하느님의 허락 하에 아담이 지상의 여러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은 행위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한 계약을 세운 것이다. (노아는 각 동물의 한 쌍을 배에 실어 이 책임을 수행했다.) 바람직한 대부 대모의 책임은 세례성사나 축일에 한번 연락하고 선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부 대모의 책임은 대자녀의 참된 성품과 건강을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온 생애에 걸친 보호와 사랑과 양육을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아담”(total Adam)은 “지구의 날”이나 환경 청소의 날보다 훨씬 더 자주 지구를 보살펴야 한다.

06 This is discussed extensively in S. Bulgakov's book *Icons and the Name of God* (translated by Boris Jakim), translation published in English in 2012, Eerdmans Press.

## Priests of Creation

Early signs of “proenvironmental” thinking abound in the ancient Church Fathers. St. John of Damascus in his defense of the use of icons in the Church wrote “I shall not cease from reverencing matter, by means of which my salvation has been achieved...”<sup>07</sup> St John is talking of Christ here because Christ became matter—water and chemicals—the same materials that we are made of. Moreover, these are the same materials of which the Earth itself is made. By becoming matter, Christ made matter holy. This embrace of material is Christ’s love not only for humanity but for all the world, including the living and non-living parts of the planet Earth. Because all living things are more than 90% water, all life on Earth could be seen as countless iterations of “evolution of water”. At the same time, the most “matter focused” Church feast is the feast of Theophany, of Jesus’ baptism in the Jordan, when we bless water in an act of turning back to God what is His. In celebrating this feast, the water that God has given us is sanctified by prayer and blessing. Next, we take this blessed water to our homes, drink it, or make ice crosses with it: we are reminded that water—our own most abundant substance, came from God allowing us to become who we are. And again –all of the remainder of His living creation

07 *On the Holy Images* 1.16

## 피조세계의 사제들

“친환경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많은 흔적들을 옛날 교회 교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교회의 성화 사용을 옹호하면서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물질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록했다.<sup>07</sup> 성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물질(물과 화학물질)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물질이 되심으로써 물질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물질에 대한 이런 포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류뿐만 아니라 온 지구의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온 세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생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물이므로 지구의 모든 생명은 “물의 진화”라는 끝없는 반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물질에 중심을 둔” 교회 축일은 요르단 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신현 축일(Theophany)이고,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반환하는 행위로 물을 축성한다. 이 축일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은 기도와 축복으로 축성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축성된 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마시거나 얼음 십자가를 만든다. 즉, 우리는 우리의 가장 풍부한 물질인 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리고 하느님의 피조세계도 우리처럼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한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

is just as watery as we are. Nothing is ours, all is God's, and we reverence Him by taking what He has given and giving it back to Him. In celebrating the Eucharist, we do not say "I offer" but rather "we offer"—because we are not acting alone but in communion with all of humanity (and perhaps all other life as well). When we offer communion to God, we ourselves are part of what we offer. We stand before God not just as ourselves but as part of nature, not above nature but within and alongside it. We are "offerers" on behalf of non-human creation rather than its rulers.

The Encyclical of the Holy and Great Council of Crete in 2016 proclaimed this ideal:

The roots of the ecological crisis are spiritual and ethical, inhering within the heart of each man. This crisis has become more acute in recent centuries on account of the various divisions provoked by human passions – such as greed, avarice, egotism and the insatiable desire for more – and by their consequences for the planet, as with climate change, which now threatens to a large extent the natural environment, our common "home". The rup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creation is a perversion of the authentic use of God's creation. The approach to the ecological problem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the Christian

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경배한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내가 바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바친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를 포함하여) 온 인류와의 친교 상태 안에서 바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친교(communion)의 제물을 바칠 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바치는 것의 한 부분이 된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 안에 있는 존재로서, 자연과 함께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대신하는 “봉헌자”이지 지배자는 아니다.

크레타에서 개최된 2016년 거룩한 세계 공의회 회의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환경 위기의 뿌리는 영적이며 윤리적이다.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한다. 최근 세기 동안 이 위기는, 탐욕, 인색함, 이기심, 더 많은 것을 향한 욕구 등과 같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그리고 그런 욕망이 지구에 미친 결과들, 예컨대 지금 우리의 “집”인 자연 환경을 광범위하게 위협하는 기후 변화와 같은 결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 안에 일어난 파열은, 하느님의 피조세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용한 결과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원리들에 기초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연자원을 지나치게 착취한 죄를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해 정신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주의, 욕구들의 신성화, 소유욕 등을 해독하는 금욕을 실천

tradition demands not only repentance for the sin of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planet, namely, a radical change in mentality and behavior, but also asceticism as an antidote to consumerism, the deification of needs and the acquisitive attitude. It also presupposes our greatest responsibility to hand down a viable natural environment to future generations and to use it according to divine will and blessing. In the sacraments of the Church, creation is affirmed and man is encouraged to act as a steward, protector and “priest” of creation, offering it by way of doxology to the Creator – “Your own of your own we offer to You in all and for all” – and cultivating a Eucharistic relationship with creation. This Orthodox, Gospel and Patristic approach also turns our attention to the social dimensions and the tragic consequences of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sup>08</sup>

This statement is perhaps the first statement on environment that has been issued by a broad Council of Bishops in general assembly. Such statements attest to the importance that Orthodox Christian hierarchs place on ecology. In addition, the document emphasizes the need for asceticism, self-restraint, as an antidote to the consumerism that leads to environmental exploitation.

08 Available at the website: [www.holycouncil.org](http://www.holycouncil.org)(accessed 10 November 2018)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과 하느님의 뜻과 강복에 합당하게 자연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교회의 성사들 안에서, 피조세계는 긍정된다. 또 인간은 “당신의 것인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특히 이 예물을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모든 곳에서 당신께 바치나이다”라고 영광 돌리며 창조주께 피조세계를 봉헌하고, 이렇게 피조세계와 성만찬적인 관계를 일구어나감으로써, 피조세계의 관리자, 보호자 사제로 행동하도록 고무된다. 정통 신앙과 복음과 교부들의 정신을 따르는 이런 관점은, 또한 자연 환경 파괴의 사회적 차원과 비극적인 결과들로 우리의 관심을 이끈다.<sup>08</sup>

이것은 아마도 주교 공의회에서 발표한 환경에 대한 첫 번째 선언일 것이다. 이 선언은 정교회 대주교들이 생태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환경 남용을 초래하는 소비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욕주의, 자기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08 Available at the website: [www.holycouncil.org](http://www.holycouncil.org)(accessed 10 November 2018)

## **Selected views on ecology: St. Symeon the New Theologian**

The 10<sup>th</sup>-century Church Father, St. Symeon the New Theologian, wrote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identified a way toward responsibility without the ownership that leads to depreciation. He wrote numerous works and was a mystic who taught about the vision of divine light and the struggle against the passions. He taught that our natural surroundings and creation cannot be excluded and isolated from a person's life, and that nature plays a role in a person's spiritual struggle. St. Symeon viewed humanity as God's representatives in the world who must have a right attitude toward the world and use matter in accordance with nature. According to him, a right attitude toward God means having a right behavior toward the world, a view that must be restored since the fallenness of the world yielded a distorted attitude toward it. He wrote:

“No man can use his visual sense alone and properly comprehend the greatness of the heavens, or the extent of the earth, or the order of all things. How could bodily eyes ever manage to grasp things that transcend mind and understanding? It is only with difficulty that the mind can gain a true contemplation of existing reality, and only then after it has been purified of its own opinions, freed of its prejudices and illumined by the grace and mercy of God. Even then, it only perceives

## 생태계에 관한 견해들:

### 새로운 신학자 성 시메온(St. Symeon)

10세기의 교부인, 신(新)신학자 시메온 성인은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경시를 초래하는 소유를 배제하고 대신 책임의 길을 제시했다. 그는 정념들과 투쟁과 신성한 빛에 대해 가르친 신비가로 많은 저서를 썼다. 그는 우리의 자연 환경과 피조세계는 사람의 삶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고립될 수 없고, 자연은 사람의 영적 투쟁에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가르쳤다. 성 시메온은 인류를, 세상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본성에 맞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하느님의 대표자들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세상을 향한 올바른 태도(즉, 타락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왜곡된 태도를 갖게 된 이후 회복되어야 할 시각)를 의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어느 누구도 눈으로 보는 능력으로만 하늘의 위대함, 지구의 규모, 사물의 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육안으로 생각과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견해를 정화하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비취진 이후에야 그 생각은 현실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까스로 얻을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생각은 비취진 대로 인식할 뿐이다.”<sup>09</sup>

09 *The Practical and Theological Chapters* 1:34, IN Cistercian Studies Series, no 41: Symeon the New Theologian, Cistercian Publications, 1982, p. 42.

insofar as it has been illumined.”<sup>09</sup>

While St. Symeon exclaimed that the material world should be used, he believed that it should be used in accordance with nature itself, that a harmonious relationship should exist between humanity and the environment. St. Symeon also notes that the things of the world belong to all: “The things and possessions that are in the world are common to all, like the light and this air that we breathe, as well as the pasture for the dumb animals on the plains and on the mountains. All these things were made for all in common solely for use and enjoyment; in terms of ownership they belong to no one.”<sup>10</sup> Again, in this, St. Symeon is reflecting the idea of humanity as not owning the world but sharing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and the creation of harmony in the world.

### **Selected views on ecology: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His Holiness the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has become known as the “Green Patriarch” for the commitment he has made to environmental concerns. In a famous statement

09 *The Practical and Theological Chapters* 1:34, IN Cistercian Studies Series, no 41: Symeon the New Theologian, Cistercian Publications, 1982, p. 42.

10 *Discourses*, 9.4, “On Works of Mercy” IN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Paulist Press, 1980, pp. 153-161.

시메온 성인은 물질세계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류와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세상의 것들은 모두에게 속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과 소유물들은, 말없는 동물들을 위한 산과 들의 목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빛처럼, 우리 모두의 공동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용과 즐거움만을 위해 모두를 위해 공용으로 만들어졌다.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도 없다.”<sup>10</sup>

여기에서 시메온 성인은 인류가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생태계에 관한 견해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성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기울인 노력으로 인해 “녹색 총대주교”라고 알려져 있다. 그분은 “자연 세계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이다. 인류가 동물을 멸종하게 하여 하느님의 창조물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 사

10 *Discourses*, 9.4, “On Works of Mercy” IN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Paulist Press, 1980, pp. 153-161.

that challenged the world to reconsider what it was doing to the environment, His Holiness wrote: “To commit a crime against the natural world is a sin. For humans to cause species to become extinct and to destroy the biological diversity of God’s creation ... for humans to degrade the integrity of Earth by causing changes in its climate, by stripping the Earth of its natural forests, or destroying its wetlands...for humans to injure other humans with disease. ... for humans to contaminate the Earth’s waters, its land, its air, and its life, with poisonous substances...these are sins.” We are called to repent of the sins we have committed against nature and each other, so that we pursue a new journey with courage and joy calling all to dedicate themselves to a mission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renewal. Long before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took public and obvious stands on the environment, the Ecumenical Patriarchate did so by dedicating September 1 of each year (the beginning of the Church year) to the environment, by writing numerous environmental encyclicals over the years, by sponsoring International Ecological symposia every two to three years in various areas of environmental fragility, and by writing books on the topic. His most recent book on Ecology, *Cosmic Grace, Humble Prayer*, is in use in seminaries and theological schools throughout the world as an example of a vision of ecological humility.

람들이 질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 인류가 유해물로 지구의 물과 대지와 공기와 생물을 오염시키는 것 ... 이 모든 것은 죄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환경 회복과 갱신이라는 임무에 동참하는 새로운 과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와 기독교 교회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가 환경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훨씬 이전에, 총대주교는 (교회력이 시작하는) 9월 1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수년 동안 환경에 대한 많은 회칙을 선언하고, 환경이 취약한 여러 지역에서 2, 3년마다 국제 환경 심포지엄이 개최되도록 지원했고, 이 주제에 대한 여러 책을 출간했다. 생태계에 관한 그의 최근의 저서, 『Cosmic Grace, Humble Prayer』는 생태적 겸손에 대한 통찰의 모범으로 전 세계의 여러 신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Most recently on Crete, His All-Holiness drew upon the idea that while no one is insulated from environmental problems, those that are most vulnerable and in need of support are those most likely to be affected by environmental questions. He said in his opening remarks at the most recent Environmental Conference “Green Attica” held on June 5-8 2018 in Athens and the Greek islands the following:

From the outset, we have underlined the inter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s well as the necessity to address them in conjunction and in collaboration.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respecting and serving our fellow human beings, are two sides of one and the same coin. The consequences of the ecological crisis—which affect, first and foremost,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are a serious threat for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The identity of every society and measure of every culture are not judged by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economic growth or public infrastructure. Our civil life and civilization are defined and judged primarily by our respect for the dignity of humanity and integrity of nature.<sup>11</sup>

11 From the Patriarch’s opening speech at the Acropolis, June 5 2018, patriarchate.org accessed 10 November 2018)



가장 최근에 성하께서는 크레타에서, 어느 누구도 환경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가장 취약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환경 문제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셨다. 2018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아테네와 그리스도의 여러 섬들에서 개최된 “녹색 아티카”라는 환경 회의의 개회사에서 그 분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앞에서 우리는 환경문제와 사회문제의 상호연관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합과 협력의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과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생태적 위기의 충격은 사회적 결집과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모든 사회의 정체성과 모든 문화의 수준은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이나 공공 인프라의 발전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 생활과 문명은 인류의 존엄성과 자연의 온전함에 대한 우리의 존중심으로 주로 결정되고 판단된다.<sup>11</sup>

11 From the Patriarch's opening speech at the Acropolis, June 5 2018, patriarchate.org accessed 10 November 2018)

It is in this call for human dignity and the integrity of nature that His All-Holiness' comments are most profound, reminding all of us that we must be concerned with showing respect and love to all cultures and societies.

### **Common Themes, Conclusions**

After His All-Holiness began his expression of concern for the environment, many other religious leaders world-wide took up the same mantle. Most notably, the Pope issued an Encyclical Letter on Care for Our Common Home, "Laudato Si, mi' Signore," using the words of St. Francis of Assisi that remind us that our common home is like a sister with whom we share our life and a mother who opens her arms to embrace us.<sup>12</sup> Major themes of this document include the idea that all people are asked to embrace the mission of Ecological Care, that developed nations are called to help developing nations in this work, and that science and that religious dialogue can be useful for the common go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imilar documents can be found from Lutheran, Episcopalian, and other Christian sources as well as Jewish, Muslim and a few other faith traditions. In inter-faith dialogue, we see many distances and differences as we talk about what we believe

12 From Pope Francis, *Praise Be to You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Ignatius Press, 2016.

성하의 주장이 가지는 깊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온전함을 위한 이 소명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문화와 사회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 결론 - 공동의 주제들

총대주교가 환경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종은 “우리 공동의 집 돌보기”(Care for Our Common Home)에 관한 교서, 『찬미 받으소서, 나의 주님』(Laudato Si, mi' Signore)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공동의 집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자매와 우리를 포용하기 위해 팔을 벌리는 어머니와 같다는 아씨시(Assisi)의 성 프란체스코(St. Francis)의 말을 인용했다.<sup>12</sup> 이 글의 요지는 모든 사람들이 생태계 보호의 임무에 참여할 것과, 이 임무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줄 것과,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는 환경보호라는 공동의 목표에 효과적이라는 것 등이다. 유대교, 이슬람교 등의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루터교, 성공회 등의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종교 간의 대화에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거리감과 차이점을 느낀다. 하지만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 지도자들 간의 토론에 과학자들이 합류하면, 물

12 From Pope Francis, *Praise Be to You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Ignatius Press, 2016.

in. Nevertheless, when we start to talk about the environment we often find common ground, and when scientists are included in such discussions among faith leaders, we benefit from common language and evidence-based knowledge of material phenomena. Perhaps this is an outcome of the fact that God endowed all of us with a reverence for His creation and a capacity to grow in our understanding of it. These commonalities, along with the many themes pertaining to respecting and caring for the natural world shared by Orthodox Christians, our ecumenical Christian partners, and so many different faith traditions carry the potential to unite scientists and religious traditions in one voice to proclaim the need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protection.

질적 현상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 지식과 공통의 언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아마도 이것은, 하느님이 그분의 창조세계에 대한 존중심과,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주었다는 사실의 결과일 것이다. 정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파트너 교회들, 그리고 많은 다른 종교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존중과 보살핌에 관한 많은 주제들과 함께, 이러한 공통점들은 환경 보존과 보호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선언하도록 과학과 종교를 연합시키는 잠재력을 지닌다.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 네 번째 강연

### 4th Lecture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여라 :  
정교회에서 본 환경 정의(正義)

Love God, Love thy Neighbor, Love the Trees:  
Environmental Justice in Orthodox Christianity

페리 하말리스 보제, 박사  
Rev. Deacon Perry Hamalis, Ph.D.

▣ 4th Lecture

# Love God, Love thy Neighbor, Love the Trees: Environmental Justice in Orthodox Christianity

Rev. Deacon Perry Hamalis, Ph.D.  
North Central College (Naperville, IL USA)

Your All-Holiness,

## I. Introduction

It is an honor beyond words to have been invited to speak today, during this historic visit of His-All 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be among so many inspiring leaders, scholars, and people of faith and good will. I ask your forgiveness from now, because my words will be poor in comparison to what you have already heard.

The title of today's symposium highlights three terms—**Ecology**,



▣ 네 번째 강연

##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여라 : 정교회에서 본 환경 정의(正義)

페리 하말리스 보제, 박사  
노스센트럴 대학 종교학 교수

존경하는 총대주교님,

### I. 들어가며

존경하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방한이라는 역사적인 기간에, 저도 발표자로 초대받게 되어, 또 여러 훌륭한 지도자분들, 학자분들, 믿음과 선한 의지를 가진 많은 분들 사이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도 영광입니다. 제 발표는 앞선 발제자분들의 발표에 비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들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의 주제는 세 가지 용어, 생태학, 신학, 인간

**Theology, and Human Dignity**—and points to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as a worldview and way of life that, despite being less well-known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here in Korea), provides much-needed insights into each of these distinct areas of reflection: insights into Ecology, into the dignity of human persons, and into Theology.

However, the central message I hope to communicate today is that *part of the promise that Orthodox Christianity holds for responding to some of our greatest social and global challenges lies precisely in the way that ecology, human dignity, and theology are inseparably interrelated and integrated within an Orthodox worldview.*

For far too long, much Christian theology around the world was pursued and taught without a significant connection to ecology—without a direct concern for ‘the relations of organisms to one another and to their physical surroundings.’<sup>01</sup> While theologians traditionally provided some account of the origin of the cosmos, and of God as the Creator, there was little discussion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ecology and theology.<sup>02</sup> Thus, when he destruction of the

01 This is the definition of ‘ecology’ provided by the German Zoologist, Ernst Haeckel, who first used the term to refer to a specialized field of scientific study.

02 For a helpful discussion of exceptions to this trend, see Panu Pihkala, “Rediscovery of Early Twentieth-Century Ecotheology,” *Open Theology* 2 (2016): 268-285.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곳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교회 신학 전통은 생태학, 인간 존엄성, 신학 등 뚜렷이 구별되는 세 분야 각각에, 절실히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세계관이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중심 메시지는 *우리의 커다란 사회적 지구적 도전들에 응답함에 있어서 정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은 바로, 정교회 신앙의 세계관 안에서 생태학과 인간 존엄성과 신학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통합되는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교 신학은 생태학과의 의미 있는 연관성 없이, ‘유기체들이 서로 간에 또 물리적 환경과 갖는 관계’<sup>01</sup>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없이 추구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 어떤 설명들을 내놓았지만, 그 안에서 생태학과 신학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sup>02</sup> 그래서 20세기에 환경 파괴가 광범위한 문제가 되

- 01 이것은 독일의 동물학자 에른스트 헤켈 (Ernst Haeckel)이 제공한 '생태학 (ecology)'의 정의로, 그는 과학 연구의 전문 분야를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 02 이 경향의 예외에 대한 유익한 논고로는, Panu Pihkala, “Rediscovery of Early Twentieth-Century Ecotheology,” *Open Theology* 2 (2016): 268-285를 참조하십시오.

environment became a matter of wide-spread concern in the 20<sup>th</sup> century, Christian theology was perceived as being irrelevant or worse, as Dr. Woloschak has discussed, it was seen as the culprit, or cause,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because of: (1) its sharp distinction between Creator and Creation, which emphasized God's transcendence; (2) its account of creation, which placed human beings hierarchically above the rest of the natural world and seemed to sanction humanity's domination and unrestricted use of nature; and (3) its emphasis on 'saving people's souls' and on reaching a 'heavenly kingdom' beyond this world.

Thankfully, especially over the past 50 years, good work has been done across many denominations to correct the false interpretations of Christianity as harmful or indifferent to the environment. In addition, many scholars have advanced our understanding of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ecology** and Christian **theology**, a field sometimes referred to as "ecotheology."

Similarly, for far too long, much Christian theology around the world was pursued and taught without a significant connection to liberating oppressed and enslaved persons from their dehumanizing condition. While 'care for the poor' remained a central theme in most Christian communities, critiquing the laws and other social structures that sustain inequality and undermine the full dignity of so many human beings was not a major focus among theologians.

있을 때, 그리스도교 신학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더 심각하게는, 윌로샤크 교수님이 논한 것처럼, 환경 파괴의 장본인 또는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신학이 하느님의 초월을 강조하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두었고, 둘째, 신학이 인간을 위계적으로 나머지 자연계의 위에 배치하고, 인류의 자연 지배와 제한 없는 자연 사용을 허용한 것처럼 설명했고, 셋째, 신학이 ‘영혼 구원’과 이 세상 너머의 ‘천국’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교의 많은 교과들이, 특히 지난 5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환경에 해를 끼친다거나 무관심하다는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잡기 위해 의미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환경 생태학과 그리스도교 신학 사이의 밀접한 관계 - 때때로 ‘생태신학(환경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야 - 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오랜 세월동안,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교 신학은 억압받고 노예화된 사람들을 그들이 처한 비인간적인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 의미 있는 연관을 갖지 못한 채 추진되고 가르쳐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 주제였지만,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완전한 존엄성을 짓밟는 법적 제도들과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는 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초점

Once slavery became illegal in nations around the world during the 19<sup>th</sup> and early 20<sup>th</sup> centuries, too many Christian thinkers either assumed, falsely, that slavery had in fact ended or they accepted the equally false belief that the poor are poor because they are sinful, undisciplined, or lazy.

Thankfully, again, over the past 50 years, many theologians have refocused upon the central message of liberation within Judaism and Christianity. They have drawn from the Exodus story and from Jesus' words recorded in the Gospel of Luke,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Lk. 4:18-19). They have identified and critiqued not only the reality of human suffering but also the social structures and cultural attitudes that promote and perpetuate such neglect, exploitation, and abuse. These Christian thinkers, sometimes referred to as "liberation theologians," have focu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ology** and **human dignity**, between God's love and the liberation of those human beings who are treated unjustly—and even enslaved—because of their poverty, their race, their nationality, their gender, their disability, their refugee status, or some other characteristic beyond their control.

While connections are being rediscovered between theology

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서 노예 제도가 불법화되었을 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노예 제도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잘못 추정하였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거나 교육 받지 못했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다행스럽게도, 지난 5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존재하는 해방의 메시지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야기와 루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가 4:18-19)로부터 이 메시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시와 착취와 학대를 조장하고 지속시키는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태도들도 밝혀내고 비판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이라고도 불리는 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신학과 인간 존엄성 사이의 관계, 하느님의 사랑과 가난, 인종, 국적, 성별, 장애, 난민적 지위, 또는 그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다른 특성들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 받거나 - 심지어 노예가 되어버린 - 사람들의 해방 사이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왔습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신학과 생태학 사이의 관계가, 또 다른

and ecology, on the one hand, and between theology and human dignity on the other, *we rarely see the integration of all three areas of reflection*. Those Christian theologians who embrace ecology usually do not pay attention to the ways that harming the natural world affects those who are poor and oppressed disproportionately more than it affects those who are wealthy and free. In other words, they do not connect “**human dignity**” to their reflection on **ecology** and **theology**.

And the same holds true for theologians who examine the deep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ology and human dignity. While they proclaim the gospel’s message of liberation for human beings, they typically do not pay attention to the ways that modern slavery—the horrifying reality of forced labor, sex trafficking, child soldiering, exploitation of migrants and refugees, and other violations of basic human dignity—are inescapably tied to the environmental crisis. In other words, they fail to connect “**ecology**” to their reflection on **human dignity** and **theology**.

However, there are a few scholars and theologians who, in recent decades, have been discerning and directing our attention to the mutuality between **ecology** and **human dignity**—between the abuse of the environment and the abuse of human beings. One shining example is today’s keynote speaker, His-All 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In his book, *Encountering the*



한편으로는 신학과 인간 존엄성 간의 관계가 재발견되고 있지만, 이 세 분야가 통합되는 경우를 우리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생태학을 받아들인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대개, 자연 세계를 해치는 것이, 부유하고 자유로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생태학과 신학에 대한 자신들의 논의에 “인간 존엄성”을 연결 짓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학과 인간 존엄성의 깊은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해방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현대판 노예제 - 강제 노동, 성매매, 소년병, 이주자와 난민 착취, 그 밖에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침해하는 다른 문제들의 끔찍한 현실 - 가 환경 위기에 불가피하게 얽여 있는 방식들에는 대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학에 대한 자신들의 논의에 “생태학”을 연결 짓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환경 남용과 인간 학대 사이의 상호 관계, 생태학과 인간 존엄성의 상호 관계를 간파하고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그것으로 이끈 몇몇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예가 바로 오늘의 기조 연설자,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이십니다. 이제 한국어로도 출판된 그분의 책 『신비와의 만남』에서 총대주교님은 다음과 같이 쓰고 계

*Mystery*, which is now available in Korean, His All-Holiness writes:

*“Orthodox theology ... recognizes the natural creation as inseparable from the identity and destiny of humanity, because every human action leaves a lasting imprint on the body of the earth. Human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creation directly impact on and reflect human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other people ... Scientists estimate that those most hurt by global warming in years to come will be those who can least afford it. Therefore, the ecological problem of pollution is invariably connected to the social problem of poverty; and so all ecological activity is ultimately measured and properly judged by its impact and effect upon the poor (see Matt. 25).”*<sup>03</sup>

And similarly, last year, in his opening address at the Ecumenical forum on modern slavery, His All- Holiness stated the following:

*“We are convinced that responding to the problem of modern slavery is directly and inseparably linked to creation care...The entire world is the body of Christ; just as human beings are the very body of Christ.*

03 HAH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Encountering the Mystery: Understanding Orthodox Christianity Today* (New York: Doubleday, 2008), 94-95.

입니다.

“...정교 신학은 자연적 피조세계가 인류의 정체성, 인류의 운명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승인한다.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가 대지의 몸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피조세계를 향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타인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반영한다. ... 향후 십 수 년 안에 기후 온난화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오염이라는 생태적 문제가 직접적으로 가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모든 생태적 활동은 결국 가난한 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기준 삼아 평가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 마태오 25장)”<sup>03</sup>

이와 비슷하게, 작년에 열린 현대판 노예 제도에 관한 에큐메니컬 포럼의 개회사에서, 세계 총대주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노예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피조물을 보살피는 것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 전 세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03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신비와의 만남 : 현대 세계와 정교회 신앙, 정교회출판사, 140쪽.

*The whole planet bears the traces of God, just as every perso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e way we respect creation reflects the way we respond to our fellow human beings. The scars we inflict on our environment reveal our willingness to exploit our brother and sister.*<sup>04</sup>

The vision that His All-Holiness expresses in these passages, and throughout his ministry, bears witness to Orthodox Christianity's integrated understanding of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time that remains, I will first offer two concrete examples that highlight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ecology and human dignity. After this, I will discuss briefly two of Orthodox Christianity's teachings that highlight the Church's integrated worldview.

04 HAH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Opening Address" for the Form on Modern Slavery, "Sins Before Our Eyes" (Istanbul, February 7, 2017).

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지구 전체도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존중하는 방식은 우리가 다른 인격체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에 입히는 흉터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를 착취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sup>04</sup>

총대주교님께서, 위에 인용된 구절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사목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전망은 정교회 전통과 가르침이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해 통합적인 이해를 갖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남은 제 발표 시간 동안, 저는 먼저 생태학과 인간 존엄성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의 통합적인 세계관을 강조하는 정교회의 가르침 두 가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4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현대판 노예에 관한 포럼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는 죄들” 개회사 중, 이스탄불, 2017년 2월 7일

## II. Two Examples: Environmental Racism and Modern Slavery

In the City of Chicago, where my family and I are now living, ecologists recently published a study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risks and benefits. The report included a map that showed all the various sections of the city, and color-coded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health in each section based upon a large set of factors, including levels of air and water toxins, quantities of heavy metals in the soil, and proximity to industrial factories and waste treatment centers. Neighborhoods that were colored blue or blue-green on the map had the lowest levels of pollution and the healthiest overall environment. *None* of these “blue” neighborhoods included facilities that produced or processed large-scale industrial waste. In contrast, neighborhoods that were colored red or red-orange on the map had the highest levels of pollution and the most dangerous overall environment. Often these “red” neighborhoods included *multiple* factories or waste disposal sites.

Can you guess who lives in the “blue” neighborhoods? Primarily wealthy Chicagoans who are almost exclusively white/Caucasian. And can you guess who lives in the “red” neighborhoods? Chicago’s economically poor, who are primarily racial minorities—African-Americans and Latinos.

The study also showed that public schools in the “red” zones

## II. 두 가지 사례 :

### 환경 인종주의와 현대판 노예제

제가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도시 시카고에서, 생태학자들은 최근, 환경 위해성과 환경 편익의 분포를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도시의 모든 구역들을 보여주는 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 독소의 수준, 토양 속에 묻힌 중금속의 양, 산업 공장 및 폐기물 처리 시설과의 근접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각 구역의 환경 위생(환경 보건) 상태를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지도에서 청색 또는 청-녹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오염 수준이 가장 낮고 전반적으로 건강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색” 지역들에는 대규모 산업 폐기물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적색 또는 적-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오염과 전반적으로 가장 위험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색” 지역들 중에는 다수의 공장 또는 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색” 지역들에 누가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백인종인, 부유한 시카고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색” 지역들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바로 시카고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주로 소수 인종인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 아메리카인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또, “적색” 지대에 있는 공립 학교들이 종종 주요

are often located very close to major pollution sources, which puts children in these neighborhoods at even higher risk for exposure to neuro-toxins linked to learning disabilities.<sup>05</sup> And on top of this, because they are viewed as a financial risk, “red zone” neighborhoods are likely to have no local supermarkets that offer fresh fruits, vegetables, and other healthy food options. It is a grim and offensive picture: some human beings are breathing clean air, drinking safe water, enjoying easy access to healthy foods, and attending schools far from industrial sites, while other human beings—*living in the same city*—experience the opposite reality.

This is an example of what scholars call “environmental racism,” which is one form of environmental injustice. It provides us with a picture of the interconnection between polluting the environment and oppressing human beings; between abuse of the natural world and abuse of persons; between ecological harm and loss of human dignity. Citizens of Chicago who live in “red zones” carry a disproportionate amount of the environmental risk because they are less wealthy, less educated, and less connected to the politicians

05 For the color-coded map see: <https://www.nrdc.org/experts/meleah-geertsma/new-map-shows-chicago-needs-environmental-justice-reforms> For a study on the proximity of schools to sources of pollution, see S. Grineski and T. Collins, “Geographic and social disparities in exposure to air neurotoxicants at U.S. public schools” *Environmental Research* 161 (2018): 580-587.



오염원에 아주 근접해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사는 어린이들은 학습 장애와 관련이 있는 신경 독소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sup>05</sup> 이에 더하여, “적색” 지역 동네들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고 되려 금융 위험을 초래하는 곳으로 여겨지기에, 신선한 과일, 야채, 그리고 다른 건강한 음식들을 공급하는 지역 마켓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안전한 물을 마시고, 건강한 음식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산업 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 반대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니, 참으로 냉혹하고 불쾌한 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환경 인종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한 사례로, 환경 인종주의는 환경 부정의(不正義)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과 인간을 억압하는 것의 상호 관련성, 자연 세계를 남용하는 것과 인간을 학대하는 것의 상호 관련성, 생태학적 피해와 인간 존엄성 상실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색 시대”에 거주하는 시카고 시민들은 부유하지 않고, 교육 수준이 낮고,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들의 부지 선정을 결정하는 정치가들과 잘 알지

05 색갈로 구분된 지도를 보려면 : <https://www.nrdc.org/experts/meleah-geertsma/new-map-shows-chicago-needs-environmental-justice-reforms>. 학교의 오염원에의 근접성에 관한 연구는 S. Grineski와 T. Collins의 “Geographic and social disparities in exposure to air neurotoxins at U.S. public schools” *Environmental Research* 161 (2018): 580-587.를 참조하십시오.

who determine where high-polluting businesses can be located. In short, the poor are trapped, and any effort to move elsewhere presents different obstacles and injustices. Simultaneously, those living in “blue zones” confront minimal environmental risks yet gain maximum benefits—from better health, to increased property values, to excellent schools, to profits from investing in companies that dump their waste in red zones. **Ecology** and **human dignity** are inseparably connected, for good and for ill.

While environment injustice in Chicago grows out of decades of racism and segregated housing, other parts of the world confront similar challenges. Recent studies on Environmental Inequity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example, consider the “Toxic Release Inventory (TRI)” and show that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risks and benefits are not evenly balanced across different sociopolitical groups on the peninsula.<sup>06</sup>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as more foreigners migrate to Korea and settle in low-income urban neighborhoods, these immigrant-concentrated neighborhoods tend

06 See, for example two recent studies published in English: D.K. Yoon, Jung Eun Kang, and Juhyeon Park, “Exploring Environmental Inequity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Toxic Release Inventory (TRI) Facilities and Toxic Releases” *Sustainability* 9 (2017) and G. Choi, S. Heo, and J-T Le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njustice in Korea using synthetic air quality index and multiple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the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66:1 (2016): 28-37.

못하기 때문에, 환경적 위협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노출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한정된 곳에 갇혀 있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려고 해도 다른 장애물들과 부당함들을 마주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청색 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소한의 환경적 위협에 직면하지만, 건강 증진, 재산 가치의 향상, 우수한 학교에의 근접성, 적색 지대의 쓰레기 처리 기업 유치와 투자 등으로부터 최대치의 이익을 얻습니다. 이처럼, 생태학과 인간 존엄성은, 선한 것과 관계되든 나쁜 것과 관계되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의 환경 부정의(不正義)는 인종 차별 현상과, 인종에 따라 주거 지역이 구분되는 양상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에 기인하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한국에서 행해진 환경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 (Toxic Release Inventory, TRI)”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여러 사회정치적 단체들 간에 환경 위해도와 환경 편익의 분배가 고르게 균형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sup>06</sup> 또한 이 연구들은,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주하여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에 정착할수록, 이들이 모여

06 일레로 최근에 영국에서 발행된 연구 두 편을 참조하십시오 : D.K. Yoon, Jung Eun Kang, and Juhyeon Park, “Exploring Environmental Inequity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Toxic Release Inventory (TRI) Facilities and Toxic Releases” *Sustainability* 9 (2017) and G. Choi, S. Heo, and J-T Le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njustice in Korea using synthetic air quality index and multiple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the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66:1 (2016): 28-37.

to be targeted as locations for new factories and waste management facilities, which further concentrates environmental harms among the most vulnerable and powerless members of society.

A second example, modern slavery, further demonstrates the connection between ecology and human dignity in today's world. In his 2016 book, *Blood and Earth*, Professor Kevin Bales details the vicious cycle of "ecocide" and "modern slavery." One example Bales develops relates to massive "shrimp farms" along the coasts of Bangladesh, Southern India, and Indonesia.<sup>07</sup>

The abusive cycle begins with increasing demand for inexpensive shrimp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o meet this demand (and generate huge profits) miles of mangrove trees growing in shoreline swamps are cut down to give shrimp farmers clear access to the water. The destruction of the mangrove trees itself does extraordinary ecological harm. Not only are the trees killed and the creatures living in and among them displaced, there are at least two additional consequences: (1) mangrove trees are "carbon sinks;" like other trees, they pull CO<sub>2</sub> out of the air and generate fresh oxygen but, unlike other trees, mangroves are able to lock away carbon

07 Kevin Bales, *Blood and Earth: Modern Slavery, Ecocide, and the Secret to Saving the World* (New York: Spiegel and Grau, 2016): 71-97.

사는 지역들은 새로운 공장 및 폐기물 관리 시설의 장소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환경 오염 피해가 더욱 더 심하게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인 현대판 노예제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생태학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의 관계를 더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케빈 베일즈 교수는, 2016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 『피와 지구』에서, “생태계 파괴(ecocide)”와 “현대판 노예”의 악순환에 대해 자세히 밝힙니다. 베일즈 교수는 한 사례로, 방글라데시, 인도의 남부지역,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새우 양식장” 이야기를 제시합니다.<sup>07</sup>

폭력적인 순환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새우를 저렴하게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작됩니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안선 높지에서 자라는 맹그로브 나무 수만 그루가 벌목되어야 합니다. 이는 새우 양식업자들이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맹그로브 나무의 파괴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생태학적 피해를 유발하는데, 맹그로브 나무가 죽고 그 주변 숲 지대를 기반으로 살고 있던 생물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결과가 적어도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1) 맹그로브 나무는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흡수계(carbon sinks)”로, 공기 중의 이산

07 Kevin Bales, *Blood and Earth: Modern Slavery, Ecocide, and the Secret to Saving the World* (New York: Spiegel and Grau, 2016): 71-97.

by depositing it into the ocean, a process called “sequestration,” which has an exponential benefit in reducing global warming. Their destruction, therefore, carries an exponential loss. And (2), mangrove trees growing miles deep along the coast of countries like Bangladesh and Indonesia have historically provided a natural barrier during cyclones and tsunamis. Now that shrimp farmers have removed more than 80% of the mangroves in some regions, the scale of deaths and damage during such storms has skyrocketed, as witnessed with the earthquake and tsunami that hit Palu, Indonesia just 2 months ago.

Yet even worse than the ecological effects of shrimp farming is the assault on human dignity that the industry fuels. The demand for inexpensive seafood increases the need for laborers. Recruiters visit poor villages promising “good paying jobs” and offering small salary advances to families, only to then enslave children and adults in forced labor at the shrimp farms. Recruits often work for 24- or 48-hour shifts without rest, sufficient food, housing, or basic medical care, all the while surrounded by the heads and shells of shrimp. In addition, girls, boys, and female workers are frequently sexually assaulted by their “bosses,” while other recruits never even

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맹그로브 숲은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바닷속에 저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리”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통해 맹그로브 나무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맹그로브 숲의 파괴는 곧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맙니다. (2)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의 해안가를 따라 뿌리를 깊게 내리며 자라는 맹그로브 나무들은 역사적으로 열대성 폭풍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마을을 보호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새우 양식업자들이 맹그로브 나무의 80% 이상을 벌목함에 따라 폭풍우로 인한 사망 및 피해 규모가 급증했는데, 바로 두 달 전에 인도네시아의 팔루(Palu)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사례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우 양식장이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이 산업이 연료로 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렴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력을 구하는 업주들은 빈민촌을 방문하여,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며 해당 가족들에게 적은 양의 가불을 제공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을 새우 양식장에서 노예처럼 대하며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우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종종 휴식 시간이나 충분한 음식, 주택 또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없이, 온통 새우 머리와 껍질에만 둘러 싸여서는, 24시간 또는 48시간 교대로 노동합니다. 게다가, 소녀

make it to the shrimp farm because they are immediately sold to sex traffickers.

Big profits provide the incentive for those in power to expand operations—to clear more mangrove forests and build larger farms—which further harms local and global ecologies—which accelerates climate change and increases natural disasters—which destroys towns and increases poverty—which provides willing ‘recruits’ for slave-based businesses. The cycle is complete.

While this example centers on shrimp, similar vicious cycles exist around diamonds, gold, beef, sugar, steel, and the minerals necessary for cell phones and flat-screen TVs. As Bayles puts it, “environmental change is part of the engine of slavery [and] the sharp end of environmental change…comes first to the poor.”<sup>08</sup> We again see that Ecology and human dignity are inseparably connected, for good and for ill.

08 *Blood and Earth*, 8-9.



들, 소년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종종 그들의 “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곧장 성매매 업자들에게 팔려가기 때문에 새우 양식장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이익이 많이 창출되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맹그로브 숲을 더 많이 없애고 더 큰 양식장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지역 및 전 세계 생태계에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는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자연 재해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마을들이 파괴되고 빈곤이 늘어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노예처럼 일하는 곳에서라도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새우에 관한 것이지만, 비슷한 사례의 악순환들이 다이아몬드, 금, 쇠고기, 설탕, 강철, 휴대 전화 및 TV의 평면에 필요한 광물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베일즈 교수는 “환경적 변화는 노예제를 가동시키는 엔진의 일부인데, 그러면서도 환경 변화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닥칩니다.”<sup>08</sup>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태학과 인간 존엄성이, 선한 이유든 나쁜 이유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 *Blood and Earth*, 8-9.

### III. Two Teachings from the Theological-Ethical Tradition of Orthodox Christianity

Despite this heart-breaking reality, as Christians we worship the “God of Hope” and trust tha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may abound in hope” (Rom. 15:13). There is a relentless hopefulness within Orthodox Christianity, which is grounded in Christ’s Incarnation, Life,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and sending of the Holy Spirit; this hope is cultivated by the beauty and mystery of liturgy and prayer, and it is confirmed by the reality of saints across history. For those who are searching, or who are skeptical, the Orthodox Church invites you to ‘Come and see’ (Jn 1:39).

How, then, might Orthodoxy help us as we strive to protect both human dignity and the environment? There are no quick, easy, or automatic solutions. As Fr. Maximos illustrated, the brokenness and corruption we find around us, and within us, stems from passions that trace all the way back to the two most ancient of trees, and to humanity’s most ancient act of rebellion against the God who created us.

Nonetheless, I repeat my earlier claim, *part of the promise that Orthodox Christianity holds lies precisely in the way that ecology, human dignity, and theology are inseparably connected and inte-*

### III. 정교회의 신학적 - 윤리적 전통의 가르침 두 가지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의 하느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로마 15:13) 정교회 신앙에는 결코 수그러들 줄 모르는 끈질긴 희망이 존재하는데, 이 희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삶,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희망은 예배와 기도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의해 자라나며, 역사적으로 존재한 성인들의 실체에 의해 확인됩니다. 정교회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며 알아보거나 또는 의심을 품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정교회는 “와서 보십시오.”(요한 1:39)라고 말하며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정교회 신앙과 가르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빠른 해결책도, 쉬운 해결책도, 그렇다고 자동적인 해결책도 없습니다. 막시모스 신부님께서 보여주시듯,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균열과 부패는, 바로 욕망에서 기인합니다. 이 욕망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두 그루로,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인류가 처음으로 저지른 배반 행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커다란 사회적 지구적 도전들에 응답함에 있어서 정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은 바로, 정교회 신앙의 세계관 안에서 생태학과 인간 존엄성과 신학이 불

*grated within an Orthodox worldview.* Let us consider just two of the many teachings from the Orthodox tradition that highlight this claim.

### **1) A Way of Seeing: Icons**

Icons are perhaps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Orthodox Churches. People who enter an Orthodox Church for the first time are struck—and sometimes overwhelmed—by the presence of icons throughout the church. There are small icons when one enters the narthex, large icons painted on the walls and ceiling of the nave, and a screen of icons between the nave and the holy altar. Within Orthodoxy, the meaning and purpose of icons is multi-layered. One function of icons is to engage us visually, to capture and hold our attention, and to lead us to a reality beyond what we usually see. Recalling Fr. Maximos’s words, icons are surfaces that take us into the depth. They reveal to our eyes a world that we typically do not see.

The basis, or foundation, for icons is Jesus Christ. In his Letter to the Colossians, St. Paul writes that Christ “*is the image of the in-*

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통합되는 방식에 있다고 앞서 말한 저의 주장을 다시금 외쳐봅니다. 이 주장을 강조하는 정교회 신앙 전통의 많은 가르침들 중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습니다.

### 1) 바라보는 방법 : 이콘(Icons)\*

이콘(Icons)\*\*은 아마도 정교회 성당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일 것입니다. 정교회 성당에 처음 들어가보는 사람들은 성당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콘을 보며 깜짝 놀라거나, 때로는 압도 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성당 입구에 놓여진 작은 이콘들도 있고, 내부 벽과 천장에 그려진 큰 이콘들도 있고, 신자석과 지성소 사이에 놓인 이코노스타시스도 있습니다. 정교회 신앙 안에서, 이콘이 갖는 의미와 목적은 다층적입니다. 이콘의 한 가지 기능은 우리의 주의를 모아 우리를 시각적으로 사로잡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 너머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표면이라고 막시모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와 상통합니다. 이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 눈에 밝혀줍니다.

이콘(Icons)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 사도 바울로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 역자주 그리스어 원어 ‘εἰκόνα’는 이미지, 형상, 상징, 정교회 성화(聖畫) 등등을 의미. 본고에서는 ‘이콘’이라는 단어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역자주 이 단락에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며, 정교회 성화(聖畫)를 의미한다. 정교회 성화는 ‘이콘’ 또는 ‘이콘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visible God, the firstborn of creation; for by him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were created,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Col. 1:15-16). Notice, first, that St. Paul describes Christ a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Christ, who is God incarnate, the “Word made flesh” (Jn. 1:14), is the *visible* presence that reveals the *invisible* God. Furthermore, in the original Greek text, the word that St. Paul uses for “image” is “icon” (εἰκὼν τοῦ Θεοῦ τοῦ ἀοράτου); thus, Christ is the ‘icon of the invisible God.’ Christ Himself is the *first* and the *ultimate* icon, in whom we see the face of God.

While the term icon applies to Jesus Christ Himself, it also applies to all that was created by Christ,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as St. Paul stated. All of creation is “iconic,” because all of creation points beyond itself to a depth, to the God who brought all things into being. This is stated directly in the Genesis creation account, where God says, “Let us make humankind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Gen. 1:26). In the ancient Greek (Septuagint) translation of this passage the word for “image” is, again, “icon” (“Κατ’ εἰκόνα καὶ καθ’ ὁμοίωσιν”). Thus, since every human being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every human being is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골로사이 1:15-16)라고 말합니다. 바울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먼저 주목해주시요. 육화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즉 “사람이 되신 말씀”(요한 1:14)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나타내는 보이는 존재입니다. 신약 성서의 그리스어 원문을 살펴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 “형상”의 그리스어 원어는 “이콘(εἰκὼν τοῦ Θεοῦ τοῦ ἀοράτο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이콘(Icon)’입니다. 그리스도 당신께서 직접 최초이자 최고의 이콘(Icon)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콘이란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는 또한 성 사도 바울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관계된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콘적”(iconic)인데,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신들 너머에 있는 어떤 깊은 존재,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느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창세기 1:26)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에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모습”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70인역)에서 또 한번 “이콘(Icon)”으로 표

an icon, a perceivable presence that reveals God. Christ's words in Matthew 25 confirm this iconic quality, this connection between visible creation and invisible Creator, "*just as you did it (or did not do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you did it (or did not do it) to me*" (Matt. 25:40, 45).

For the Orthodox, non-human creation is also iconic. This was certainly true for Moses when he stood reverently before the burning bush and encountered the living God (Ex. 3), but it is also true in our relationship to the natural world more broadly. The 8<sup>th</sup>-century saint John of Damascus, one of the greatest defenders of Christianity's use of icons, draws a connection between Christ as icon and the natural world as icon when he writes, "*Because of the Incarnation, I gaze upon all of material creation with reverence.*" His All-Holiness spoke of our need to acquire a "Eucharistic spirit," seeing all of creation as a gift from God. This, too, is iconic, for to experience nature as a gift is to go beyond the surface to the depth, from receiving the gift to thanking the Gift-giver, from creation to the Creator.



현되고 있습니다. (“Κατ’ εικόνα και καθ’ ὁμοίωσιν”)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이콘이며, 하느님을 드러내는 인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이콘의 특성, 즉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 줍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또는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또는 해주지 않은 것이다).” (마태오 25:40, 45)

정교회 신자들에게는, 인간 이외의 피조물 또한 이콘적(iconic)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 앞에 경건히 서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맞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더 넓은 범위의 자연 세계와 갖는 관계에서도 또한 참으로 작용합니다. 8세기의 성인,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은 그리스도교의 이콘화 사용의 가장 위대한 변호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 나는 모든 물질적 피조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술하며, 이콘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이콘으로서의 자연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합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을 하느님의 선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정신(Eucharistic spirit)”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이콘적입니다. 자연을 선물로서 대하고 경험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 너머의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이고,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를 만나

Much more can be said about icons and their significance for seeing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but I offer just one further comment. The icons that we see in Orthodox Churches themselves play a vital role in cultivating an iconic way of seeing and experiencing God, our neighbor, and the natural world. For as we gaze reverently upon a painted or mosaic icon, we are drawn into the depth; the depth works on us; it heals us; and we are reminded—given ‘another’ mind—by the icon. In other words, icons promote repentance (μετάνοια). The icon’s connection to the Creator, to the Incarnate God, helps to heal us—to correct our vision so that we see God both in ‘the least of these,’ our fellow human beings, and in the most vulnerable of all God’s creatures, the voiceless animals, rocks, waters, and trees.

## **2) A Way of Acting: The Greatest Commandment – Expanded**

A second teaching from the Orthodox tradition shifts us from ‘a way of seeing’ to ‘a way of acting,’ from icons to commandments.

는 행위입니다.

이콘에 대해, 또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간의 불가분한 관계를 조명하는 이콘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교회 성당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콘화는 우리가 하느님, 우리의 이웃,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콘적인 방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콘화를 경건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깊이에서 마음이 끌립니다. 그 깊이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그것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이콘화에 의해 재상기되어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이콘은 회개(μετάνοια)를 촉진합니다. 이콘은 창조주, 곧 육화하신 하느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치유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하느님의 피조물 중 가장 연약한 것들, 말을 할 수 없는 동물들, 바위, 물, 나무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 2) 행동하는 방식: 가장 위대한 계명의 확장

정교회 신앙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를, ‘바라보는 방법’에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이콘\*에서 계명으로, 옮깁니다.

\* 역자주 넓은 의미로서의 이콘을 의미.

As the Korean people know well, war and foreign occupation generate not only human death, suffering, and multiple forms of slavery, but also environmental destruction. When my family and I spent a year here in Korea through the Fulbright Program, we noticed the great care that Koreans show toward trees. It was explained to us tha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and then during the Korea War (1950-1953), many trees were destroyed and, when the Republic of Korea began its miraculous recovery, there was a strong emphasis placed on planting and protecting trees. Trees, therefore, became a sign of freedom and hope for Koreans.

During the 18<sup>th</sup> century, when Greece was occupied by the Ottoman Turks, St. Kosmas the Aetolian (1714-1779) traveled around Greece teaching the Orthodox faith in villages. As he journeyed, his practice was to plant trees. St. Kosmas famously said, “People will remain poor because they have no love for trees.”<sup>09</sup> Notice the direct connection St. Kosmas makes between neglecting the environment and poverty—between ecology and human dignity. He taught that in order to escape poverty—which, in his context, included slavery—the faithful must ‘love the trees.’ Seeing trees as icons leads to acting toward them with loving care.

09 Markos A Gkiolas, *O Kosmas Aitolos kai I epochi tou* (Athens, 1972), 434 (para. 96), 93-94.

한국 국민분들이 잘 알고 있듯, 전쟁과 외세의 지배는 사람의 죽음, 고통, 여러 형태의 노예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또한 유발 시킵니다. 몇 년 전,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1년간 지냈을 때, 한국분들이 나무를 특별히 소중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지배(1910-1945)와 한국 전쟁(1950-1953)을 겪으면서 국토의 나무들이 많이 훼손되었고, 그래서 남한 사회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신경쓰고 보살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는 한국분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족의 지배 하에 있었던 18세기에, 그리스 에톨리아 출신의 성 코즈마스 성인(1714-1779)은 그리스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교회 신앙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성인께서 여행하는 동안 행했던 습관 하나는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코즈마스 성인이 “사람들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난할 것입니다.”라고 한 말씀은 무척 유명합니다.<sup>99</sup> 이 성인이 환경을 소홀히 돌보는 것과 가난을 직접 연결하고 있음을, 즉 생태학과 인간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인께서는 노예 같은 생활과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사랑해야’ 한다고 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나무를 이콘으로 바라보면 나무를

99 Markos A Gkiolas, *O Kosmas Aitolos kai I epochi tou* (Athens, 1972), 434 (para. 96), 93-94.

Having “love for trees” is not merely a sentimental statement within Orthodoxy, it is an affirmation of the Church’s integrated worldview. This point becomes especially clear when we consider the example of Orthodoxy’s most recently canonized saint, St. Amphilochios of Patmos (1889-1970).

For St. Amphilochios, caring for creation was not an option for Christians—it was a divine command. Along these lines, the saint once made a very bold claim: “Do you know that God gave us one more commandment,” he said, “which is not recorded in Scripture? It is the commandment ‘love the trees.’”<sup>10</sup> In addition, when St. Amphilochios would hear the confessions of local faithful, he would frequently give them an unusual penance: he would tell them that they now needed to plant and take care of a tree.

In this example, we can note first that St. Amphilochios does not simply say, “we should love the trees;” instead, he says God has commanded us to do so! All Christians are familiar with the greatest commandmen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10 This teaching of St. Amphilochios appears in the essay by Metropolitan Kallistos Ware, “Through Creation to the Creator,” in *Toward an Ecology of Transfiguration: Orthodox Christian Perspectives on Environment, Nature, and Creation*, ed. John Chryssavgis and Bruce Foltz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3): 86.

사랑스럽게 보살피게 됩니다.

정교회 신앙에서 “나무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진술이 아니라, 교회의 통합된 세계관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정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시성된 성인, 그리스 파트모스 섬의 암필로히오스 성인(1889-1970)의 예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 집니다.

암필로히오스 성인은, 피조물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성한 계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은 한번 굉장히 용감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성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더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를 사랑하라.”<sup>10</sup>는 계명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암필로히오스 성인께서 지역 신자들의 고백성사를 들을 때, 성인께서는 종종 신자들에게 흔치 않은 과제를 내 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들이 이제 나무를 심고 돌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암필로히오스 성인이 “우리는 나무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단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먼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네 마음을 다

10 성 암필로히오스의 이 가르침은 칼리스토스 웨어 대주교의 다음의 에세이에 잘 나타나있다 : “Through Creation to the Creator,” in *Toward an Ecology of Transfiguration: Orthodox Christian Perspectives on Environment, Nature, and Creation*, ed. John Chryssavgis and Bruce Foltz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3): 86.

*soul, and mind,*’ and with the second greates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Matt. 22:37-39), but St. Amphilochios expresses the deep spirit of Orthodox Christianity when he adds as a third, ‘*Love the trees.*’ Love God; love thy neighbor; love the trees—theology, philanthropy, and ecology are integrated into one iconic vision for love-centered action.

In addition, St. Amphilochios’s practice of asking people to ‘plant and care for a tree’ after confession carries profound significance: it connects reconciliation between the person and God, and between the person and their neighbor, to reconciliation between the person and the environment. Thus, if I confess that I hurt my family member, or neglect the needs of a refugee, being instructed to plant a tree expands my vision—it teaches me that how I act toward my neighbor affects all of creation. Similarly, the saint’s practice communicates that the way we treat non-human creation affects the way we treat our fellow human beings. Planting and caring for a new tree is good in itself, but it is also good because it teaches us to be more caring in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Again, we see an integrated worldview, wherein the spiritual healing of the human person, through God’s mercy and love, leads to the healing of nature.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are connected in a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라는 가장 첫째 가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라는 둘째 가는 계명에는(마태오 22:27-29) 익숙합니다. 그런데 암필로히오스 성인은 이에 더해 ‘나무를 사랑하여라.’를 세 번째 계명으로 추가하면서 정교회 신앙의 깊은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여라 - 이렇게 해서, 신학, 인간애, 생태학은 사랑이 중심이 되는 행동을 위한 한 이콘적 전망 안에 통합됩니다.

또한, 암필로히오스 성인이 고백성사를 받은 신자들에게 ‘나무를 심고 보살피’라고 했던 조언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사람들과 그 이웃들 사이의, 또 사람들과 환경 사이의 화해를 연결짓습니다. 만약 내가 가족 구성원을 다치게 하거나, 난민에게 필요한 것을 소홀히 여겼다고 고백하면, 나무를 한 그루 심으라는 조언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조언은 나의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 그것은 내가 이웃에게 행동하는 방식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의 이러한 조언은 우리가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돌보는 일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를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때문에 또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인간이 영적으로 치유되면,

single, Orthodox Christian vision.

This is a worldview that goes beyond mere eco-theology, and beyond mere liberation theology. It is a worldview that speaks both to environmental racism and to modern slavery. It is a worldview that seeks justice here and now, without losing sight of the ‘age to come.’ May God continue to bless His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s he bears witness to this integrated and iconic Orthodox vision, and may we all embrace triple love—love of God, neighbor, and all creation—as the guiding principle in our lives.

그것이 자연의 치유로도 이어진다는, 하나의 통합된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은 정교회 신앙의 한 전망 속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태 신학을 넘어서는, 또 단순한 해방 신학을 넘어서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환경 인종 주의와 현대판 노예제 둘 모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시대’의 존재를 잊지 않은 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정의를 추구해가는 세계관입니다. 이 통합되고 이콘적인 정교회 전망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시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을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계명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폐회사

FAREWELL ADDRESS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Metropolitan Ambrosios of Korea

▣ FAREWELL ADDRESS

## FAREWELL ADDRESS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Metropolitan Ambrosios of Korea**

Your All-Holiness, Father and Master,

With the Grace of God and through Your venerable prayer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has come to an end.

The only thing I can add here is an expression of sincerest gratitude on behalf of the Korean Orthodox Church to all who contributed to the organization and conduct of this extraordinary event.

First and above all, to You, Your All-Holiness, belongs our most heartfelt thanksgiving and deepest gratitude for Your venerable presence and Your insightful lecture, which helped all of us to understand better the subject Ecology & Human Dignity from an Or-

▣ 폐회사

## 국제심포지엄 폐회사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

총대주교 성하,

하느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덕분에 국제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정교회를 대표하여 이번 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친히 행사에 참석하시어 통찰력 있는 강의를 해 주신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 ‘정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thodox Christian standpoint, but also for Your patience to be present until the conclusion of today's event.

Our thanks are then extended to the prominent scholars-- the Very Reverend Archimandrite Maximos Conostas, Dr. Gayle Woloschak, and Rev. Deacon Perry Hamalis for their substantial approaches to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and their answers to the audience's questions. Also, warm thanks go to the Moderator of the panel Rev. Dr. John Chryssavgis and the translator Mrs. Yoon.

However, I also want to thank all of you who participated in today's Symposium, for without your participation, no matter how good the lectures may have been and how good the organization of the Symposium, we would not have had the fruitful results for which we hoped.

Last but not least, our warm thanks and prayers belong to all those who have worked with zeal for a long time in organizing the Symposium in all its details. I will name no one in particular because they are many, and time is limited. May the Lord God remember the toils of their love and their selfless devotion to this ministry and Orthodox witness.

Allow me only to thank by name the Director of the Publication House of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ORTHODOX EDITIONS", Fr. Antonios Lim, the translator and the designer of His All-Holiness's book, Mr. Gregory Park and Mr. Thomas Ha respec-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행사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주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법을 제시해주시고,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신 막시모스 콘스타스 수도대사제님, 게일 월로 샤크 박사님, 페리 하말리스 보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패널과 사회를 맡아 주신 존 크리사브기스 대보제님과 통역사 윤정선 님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아무리 훌륭한 심포지엄이라고 해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제약상 한 분씩 소개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와 정교회의 증언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노고를 우리 주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정교회 대교구 정교회출판사의 총괄자이신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님, 총대주교 성하의 책을 번역하고 편집하고 디자인 해주신 박노양 그레고리오스 교우와 하정훈 토마스 교우께도 높은 수준의 번역과 훌륭한 편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

tively, for the high quality and artistically superb edition they have produced. Let us all wish that it will soon be on the best seller list!

As we are leaving this Symposium, may we hold in our hearts and minds the message of a beautiful Orthodox hymn, chanted during the period of Triodion, the period leading up to Easter, since it expresses well our Orthodox ecological ethos: “Brothers and Sisters, the kingdom of God is not about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may we pursue sanctification through asceticism.”

Your All-Holiness, we humbly pray that your Official Visit to Korea, which concludes tomorrow, has been a fruitful one for all who have participated and will continue to bear abundant fruit among all those living on this blessed peninsula. May You have a safe and pleasant trip as you return to Your See at the Most Venerable Ecumenical Patriarchate.

Thank you again very much!

만간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이 책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절 전 뜨리오디온 기간 동안 부르는 정교회 성가 중 우리 정교회의 생태적 정신을 잘 나타내는 한 소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니, 금욕을 통한 성화를 추구합시다.”

총대주교 성하, 내일까지 이어지는 성하의 한국 공식 방문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축복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수확되길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성하께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으로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nvironment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 발제자 약력

### Presenter Biographies

##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rchbishop of Constantinople-New Rome**

Born Demetrios Archondonis in 1940 on the island of Imvros (today, Gökçeada, Turkey), His All-Holiness Bartholomew was elected in October 1991 as the 270th Archbishop of the 2000-year-old Church founded by St. Andrew, serving as Archbishop of Constantinople-New Rome and Ecumenical Patriarch.

The personal experience and theological formation of the Ecumenical Patriarch provide him with a unique perspective on ecumenical relations and environmental issues. His All-Holiness has worked tirelessly for reconciliation among Christian Churches and acquired an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raising ecological awareness on a global level. He has worked to advance reconciliation with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Anglican Communion, as well as other Christian confessions, through theological dialogues and personal encounters with respective leaders in order to address issues of common concern. Closely involved wit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e has served on its Executive and Central Committees and Faith and Order Commission. Moreover, he has initiated numerous international meetings and conversations with Muslim and Jewish leaders in an effort to promote mutual respect and religious tolerance worldwide, but especially in the Middle East and the Mediterranean, thereby proving a pioneer in interfaith encounters throughout the world. Finally, the Ecumenical Patriarch has presided over the historic restoration of the Autocephalous Church of Albania and the Autonomous Church of Estonia, also providing spiritual and moral support to many traditional Orthodox countries emerging from decades of wide-scale religious persecution behind the Iron Curtain.

A citizen of Turkey,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received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는 1940년 터키의 섬 임브로스에서 태어났다. 초·중등 교육을 임브로스 섬과 콘스탄티노플에서 받았다. 콘스탄티노플 할키 신학교에서 대학 교육을 마친 후 로마의 ‘교황청 동방 연구소’, 스위스의 ‘보세이 에큐메니칼 연구소’ 그리고 뮌헨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로마에서 교회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 보제 서품을, 1969년에는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68~1972년까지 할키 신학교의 부학장을 지냈으며, 1990년까지 고 디미트리오스 세계총대주교의 비서실 실장을 지냈다. 1973년 필라델피아의 주교, 1990년에는 할키돈의 대주교가 되었다. 1991년 10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선출됨으로써, 세계총대주교좌에 착좌했다. 세계의 여러 우수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스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며,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도 능통하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는 세계 정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 전통의 살아있는 계승, 지역 정교회들 간의 협력, 현대 세계에서 정교회의 공통된 증언을 위해 헌신해왔다. 알바니아와 에스토니아의 자치 정교회들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섰으며, 전통적으로는 정교회 국가였으나 철의 장막 뒤에서 수십 년 동안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오던 수많은 정교회 국가들에게 정신적, 종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는 가톨릭, 성공회, 그 밖의 다른 그리스도교파들과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왔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에도 긴밀하게 참여하며 활동했다. 상호 존중과 종교의 자유 정신에 입각하여 이슬람과 유대교 등 타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정의, 평화, 인권, 차별과 폭력, 광신주의 등 현대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복음적 전망과 대안들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별히 전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녹색 총대주교”라는 명성을 얻었다.

hi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Imvros and Istanbul. After completing undergraduate studies at the Theological School of Halki, Istanbul, His All-Holiness pursued graduate studies at the Pontifical Oriental Institute of the Gregorian University in Rome, the Ecumenical Institute in Bossey (Switzerland) and the University of Munich. His doctoral dissertation was in the field of Canon Law; he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Society of Canon Law of the Oriental Churches. Ordained to the Diaconate in 1961 and to the Priesthood in 1969, he served as Assistant Dean at the Theological School of Halki (1968-72) before being appointed Personal Secretary to his predecessor, the late Ecumenical Patriarch Demetrios (1972-90), as well as being elected Metropolitan of Philadelphia (1973) and, later, Metropolitan of Chalcedon (1990).

The role of the Ecumenical Patriarch as the primary spiritual leader of the Orthodox Christian world and transnational figure of global significance continues to prove increasingly vital. His All-Holiness has co-sponsored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s, as well as meetings on the subjects of racism and fundamentalism, bringing together Jews, Christians and Muslims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greater cooper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He has been invited to address the European Parliament, UNESCO, the World Economic Forum, as well as numerous national parliaments. He has organized eight international, inter-faith and interdisciplinary symposia, as well as numerous seminars and summits, to address ecological problems in the rivers and seas of the world, initiatives earning him the title "Green Patriarch" and the award of several significant environmental awards.

(<https://www.patriarchate.org/biography>)





**Very Rev. Arch. Maximos Constas**

**Holy Cross Greek Orthodox School of Theology**

Very Reverend Fr. Archimandrite MAXIMOS CONSTAS is Senior Research Scholar at Holy Cross Greek Orthodox School of Theology, in Brookline, Mass. He holds a PhD in Patristics and Historical Theology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in Washington, D.C. For many years he was a professor of theology at Harvard Divinity School, after which he became a monk at the Holy Monastery of Simonopetra (Mt. Athos, Greece). His most recent publication is the first-ever English translation of St Maximos the Confessor, *On Difficulties in Sacred Scripture: The Responses to Thalassios*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 which follows his edition and translation of St Maximos the Confessor, *On Difficulties in the Church Fathers: The Ambigua to Thomas and the Ambigua to John*, 2 v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He is the author of *The Art of Seeing: Paradox and Perception in Orthodox Iconography* (Alhambra, CA: Sebastian Press, 2014); *Proclus of Constantinople and the Cult of the Virgin in Late Antiquity* (Leiden: Brill, 2003); as well as numerous scholarly articles and translations, including four volumes of the writings of the contemporary Athonite Elder Aimilianos of Simonopetra, the most recent of which is *The Mystical Marriage: Spiritual Life according to St Maximos the Confessor* (Columbia, MO: Newrome Press, 2018). His work focuses on the patristic and Byzantine theological tradition, the patristic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he Philokalia and Orthodox spirituality, and the theological study of Byzantine art, icons and iconography.

## ■ 막시모스 콘스타스 수도대사제 성 십자가 정교 신학교

미국 보스턴의 ‘성 십자가 그리스 정교회 신학대학원’에서 선임 연구 학자로 근무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부학과 역사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 신학교에서 다년간 교수직을 역임하였다. 그후,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성산의 시모노페트라 수도원에서 수도사 서원을 하고 수도사가 되었다.

막시모스 대수도사제의 가장 최근의 출판물로는 성 막시모스 고백자의 최초의 영문 번역본 ‘On Difficulties in Sacred Scripture: The Responses to Thalassios’과 번역 및 편집작 ‘St Maximos the Confessor, On Difficulties in the Church Fathers: The Ambigua to Thomas and the Ambigua to John’이 있다. 또한 ‘The Art of Seeing: Paradox and Perception in Orthodox Iconography’와 ‘Proclus of Constantinople and the Cult of the Virgin in Late Antiquity’의 저자로서, 다수의 학술적 기사를 집필 및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토스 수도사였던 시모노페트라 수도원장 에밀리아노스의 최신 저서 4권을 번역하였고, 이중 최근에 출판된 ‘The Mystical Marriage: Spiritual Life according to St Maximos the Confessor’가 있다.

막시모스 대수도사제는 교부학과 비잔틴 신학적 전통, 교부학적 성서 해석, 필로칼리아와 정교영성학, 비잔틴 예술의 신학적 연구와 성화 및 성화학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Gayle E. Woloschak, D. Min., Ph. D.**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r. GAYLE E. WOLOSCHAK is Professor of Radiation Oncology, Radiology, and Cell and Molecular Biology and Associate Director of the Centers of Cancer Nanotechnology Excellence in the Feinberg School of Medicine, Northwestern University; prior to 2001 she and her research group were at Argonne National Laboratory in the Biosciences Division. She is also Adjunct Professor of Religion and Sciences at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as well as President of the Orthodox Theological Society of America (OTSA). Dr. Woloschak received a Ph.D. in Medical Sciences with a specialization in Immunology from the University of Toledo, Medical College of Ohio (1980), and she completed her postdoctoral training in the Departments of Immunology and Molecular Biology at the Mayo Clinic, where she later became an Assistant Professor. Dr. Woloschak's scientific interests are predominantly in the areas of molecular biology, radiation biology, and nanotechnology studies. She has authored over 200 scientific papers and received grants from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Dr. Woloschak is on the editorial boards of five scientific journals, including the joint publication board for *Zygon: A Journal of Science and Religion*. She is a member and currently Associate Director of the *Zygon* Center for Religion and Science, and director of the Epic of Creation and Future of Creation Science-Religion programs.

## 게일 월로샤크 박사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의 파인버그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 방사선학, 세포분자생물학 교수이고, 나노테크놀로지 암센터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이전까지 월로샤크의 연구그룹은 아르곤 국립 연구소 생물과학 분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시카고에 있는 루터교 신학대학에서 종교와 과학 조교수이고, 미국 정교 신학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월로샤크 박사는 톨레도 대학에서 면역학 연구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메이요 클리닉에서 면역학과 세포생물학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조교수가 되었다. 월로샤크의 학문적 관심은 주로 분자생물학, 방사선생물학, 나노테크놀로지 연구에 있다. 200여편 이상의 과학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국립 건강연구소와 에너지청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다. 월로샤크 박사는 다섯 개의 과학저널 편집위원, *Zygon : A Journal of Science and Religion*의 출판위원이고, 현재는 ‘지곤 종교와 과학 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Rev. Deacon Perry Hamalis, Ph.D.**  
**North Central College (Naperville, IL USA)**

Rev. Dr. PERRY T. HAMALIS holds the Cecelia Schneller Mueller Chair in Religion and is Professor of Religious Studies at North Central College in Naperville, IL (U.S.A). He earned his Ph.D. in ethics at the Divinity School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4), focusing his research on the ethical teachings of Archimandrite Sophrony Sakharov and Thomas Hobbes. His broader interests include the themes of death and fear of death, politics and religion, and applied ethics. Dr. Hamalis's works have been published in *Studies in Christian Ethics*, the *Journal of Relig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the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and in numerous encyclopedias. He is the co-editor of *Orthodox Christian Perspectives on War*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7) and has contributed to many volumes, including *Christianity, Democracy and the Shadow of Constantine* (Fordham University Press, 2016), *Toward an Ecology of Transfiguration* (Fordham University Press, 2013), *The Orthodox Christian World* (Routledge, 2012), and *Thinking through Faith*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08). His monograph, *Formed by Death: Insights for Ethics from Eastern Orthodox Christianity*, will be published by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in 2017. Dr. Hamalis has lectured on topics pertaining to Orthodoxy and ethics across the country, in Greece, and in South Korea. In 2015-16, he was awarded a Fulbright Senior Research Fellowship and named Underwood Visiting Professor of Religion at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He is an ordained deacon of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Ecumenical Patriarchate). In addition, Dr. Hamalis serves as a consultant to the Faith and Order Commiss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is a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of Hellenic College Holy Cross Greek Orthodox School of Theology.

페리 하말리스 보제, 박사  
노스센트럴 대학 종교학 교수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 있는 노스센트럴 대학 종교학 교수이다. 시카고 대학 신학부에서 수도대사제 소프로니 샤카로프와 토마스 홉스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2004) 그의 관심사는 죽음, 죽음의 공포, 정치학, 종교, 실천윤리 등 매우 폭넓다. 하말리 박사는 *Studies in Christian Ethics*, *Journal of Relig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등의 학술지와 여러 백과사전에 연구 성과들은 게재했다. *Orthodox Christian Perspectives on War*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7) 공동편집자이고, *Christianity, Democracy and the Shadow of Constantine* (Fordham University Press, 2016), *Toward an Ecology of Transfiguration* (Fordham University Press, 2013), *The Orthodox Christian World* (Routledge, 2012), *Thinking through Faith*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08) 등의 저서에도 논문을 실어 참여했다. 그의 논문 *Formed by Death : Insights for Ethics from Eastern Orthodox Christianity*는 2017년 노트르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된다. 하말리 박사는 그리스,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정교신앙과 윤리학적 주제들에 대해 강연했다. 2015-2016년 펠브라이트 연구 장학금을 받아 연세대학교 종교학 교환교수로 봉직했다. 2016년 한국 정교회에서 보제로 서품되었고,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리스 정교회 성 십자가 신학교(Holy Cross Greek orthodox school of Theology)의 이사회 멤버이다.

###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초판 1쇄 인쇄 2018년 12월 3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12월 3일

지 은 이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막시모스 콘스탄스 수도대사제  
게일 윌로샤크 박사  
페리 하말리스 보제

옮 긴 이 김성중, 박노양, 조혜원  
펴 낸 이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펴 낸 곳 정교회출판사  
출 판 등 록 제313-2010-5호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8길 43  
전 화 02-364-7020  
팩 스 02-6354-0092  
홈 페이지 [www.philokalia.co.kr](http://www.philokalia.co.kr)  
이 메 일 [orthodoxeditions@gmail.com](mailto:orthodoxeditions@gmail.com)

### 비매품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정교회 세계대주교청과와 독점계약한 정교회출판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